

# 첫째 아들이 더 탕자였다

박진호 지음

왜 오직 예수인가? ([whyjesusonly.com](http://whyjesusonly.com))

## 목차

들어가면서.....	1
올해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	5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인가? .....	17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기뻐하신다.....	29
아버지를 죽여 버린 둘째 아들 .....	41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둘째 아들 .....	53
믿음의 본질은 뽀뽀함이다.....	65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할 세 가지 축복 .....	77
최후의 도피성마져 무너뜨린 바리새인들 .....	89
인간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은 .....	101
그런데도 ‘아직’인가? 그러나 ‘이제는’인가? .....	113
매일 아침 신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	124
친구들 덕분에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	136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살려면? .....	148
목사와 교인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 .....	160
죽기 전에 인생 역전을 이루라 .....	172
신자인지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 .....	184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조건은 .....	196
신자가 절대로 행해선 안 되는 한 가지 .....	208
마땅한 신자와 못마땅한 신자 .....	220
예수 천당 불신 지옥 .....	232
맺는 말.....	244

## 들어가면서

로마제국의 박해가 끝난 이후로 지금만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 배척당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진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됨으로써 퇴폐와 방탕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 그 조류에 편승한 아니 주도한 흑암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사탄의 꾀방이 심해도 교회가 맡은 바 소명에 충성 헌신했다면 이런 정도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안팎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면 그 해결책이 구호로만 그치고 정작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내용은 아주 간단했고 신자들의 삶도 그 신앙처럼 단순했습니다. 신약성경 27 권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397 년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였습니다. 그 전의 기독교 공동체에선 복음서나 서신서의 일부가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교한 신학과 교리 체계도 훨씬 뒤에 정립되었습니다.

주후 1 세기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나마 읽는 일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순교하면서까지 역사상 가장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과 삶과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살다 죽은 모습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첫째 원인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자기들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반드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채로 맹수에 잡혀 먹거나 불에 태워져도 이제 곧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너무나 귀하고 기쁜 소망을 품고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불법적 퇴폐적 이기적 세상 흐름과는 정반대로 주님처럼 정직하고 선하며 의타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3-47) 초대신자들의 경건하고 무엇보다 절대적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었고 바로 그 삶으로 세상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나 교회 사역을 조금 개혁한다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부터 솔선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그 삶이 주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신의 절대적이고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거룩한 빛이 세상 어두움에 비춰져야 합니다.

요컨대 기독교신앙을 도덕이나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신자의 윤리적 선행이 고무 강조되고 최소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교회에서의 기독교적 의식과 행위를 더 우선시하거나 중요시하는 모습으로까지 변질 왜곡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켜보려고 도덕과 종교를 강조하는 의도는 이해해줄 만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칭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자의 현실 삶에 거룩한 능력으로 실체화될 때만 신자가 거룩하게 변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기독교가 도덕과 종교 중심이 되다보니 실제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 동행하는 성도들을 발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싶은 신자들까지 교회와 목회자가 오히려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교회와 신자들이 성경마저 그런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려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챙겨서 흥청망청 탕진하면서 온갖 죄를 지었다가 뒤늦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고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자신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스스로의 도덕적 종교적 양심에 따라 회개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고 거역 대적했던 죄인으로선 스스로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으로 간섭하여 은혜를 먼저 주어야만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회개해야 할 죄의 본질도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체 전부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므로 자기 전부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회개는 여타 종교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며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본성적 윤리의식에 따라서 수시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한 죄인의 옛 자아 전체가 오직 성령의 역사에 따라 철저히 깨트려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있는 인간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기독교구원의 진리와 여정이 정확히 드러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오르셔서 완전한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열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비유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십자가 복음을 배척할 유대인들의 종교관 구원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가르치려고 첫째 아들의 비유도 덧붙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등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총 일곱 가지 비유 시리즈로 구원론을 강해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 일곱 비유 전체를 십자가복음에 입각해 이십 차례 강해 설교한 것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구원 얻는 회개가 과연 무엇이며 그전에 회개를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지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일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엘에이 근교에서 2021 년 가을에

## 올해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눅 15:1,2)

##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가 바뀌어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으며 세상은 여전히 온갖 고난 시기 분쟁으로 지새기에 올해도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궁핍했던 현실과 종교적 핍박을 이겨냈던 초대교회 때처럼 순전한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배워보고자 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만큼 잘 드러나 있는 비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 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세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주제로 즉 연결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론 격으로 예수님이 세 비유를 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모든'이라고 수식했지만 이스라엘의 세리와 죄인들이 전부 다 모였다는(all)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많다는(many) 것을 강조하는 히브리 어법입니다. 우리도 시골운동회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 동네 사람 모두 모였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로마제국은 식민지의 세금 징수 업무를 그 속국의 현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주민세나 관세 등을 수거해 로마에게 바치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관리입니다. 자기재량으로 세율을 결정하고 인하 면제도 해줄 수 있었는데 그 권세를 이용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민족의 배반자인데다 불법과 부패를 자행하니 사람들로부터 크게 미움을 받아 유대사회에선 출교된 신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시기에 일본에 온갖 아부를 바치면서 동족을 등쳐먹는 일본경찰의 한국인 앞잡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죄인은 별도의 수식이 없으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온갖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몰라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세속적인 쾌락만 쫓고 살기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보듯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중요한 거래나 일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고 율법과 무관해 심판이 확정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아무도 상종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선 일반 유대인에 비해 숫자로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유대인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고 지금도 그들이 냉대할 텐데도 비유컨대 선뜻 예배당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의 관습과 인식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을 한 번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그들과 식사를 나눴고 삭개오의 경우는 그 집에서 하루 밤 유숙하면서 교제했습니다. 히브리어 법상 '모든'은 또 "각각의 개인"(everybody)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어느 누구의 강요나 권면 없이 각자가 자기 판단 하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워해도 주님의 가르침은 꼭 들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 랍비가 모세 율법과 유대 사회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이구나라고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 탕자의 비유를 가르친 이유

주님은 그 수군거림을 듣고 세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 유대인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음식도 나눠먹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 비유의 내용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원에 관한 것이므로 세리와 죄인을 배척하는 너희야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유대인들더러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려는 뜻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에게까지 교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금 더 착하게 만들 뿐이며 여전히 행위 구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의 그런 규정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펴본 대로 삭개오만 예외였지 세리는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요 부정부패로 치부한 악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 평안과 형통만 추구하며 세속의 쾌락만 탐닉한 죄인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들과 교제하느냐 마느냐보다 교제를 금지시킨 근거와 기준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들 스스로 제정한 도덕적 종교적 규정이었습니니다. 당장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율법을 제정할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직업이라 율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고 분명히 지시해 놓았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레 19:33)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레 24:22) 특별히 모세가 유월절 제사를 규정하면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고 선언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일차적으로 출애굽 탈출을 기념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원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 도덕과 종교의 기원

지금 도덕과 종교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유대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악에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금지한 의도는 나름대로 타당했습니다. 도덕과 종교가 맡은 역할과 그 범위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도덕과 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최초로 도덕을 제정한 배경은 사람의 탈을 썼다면 이런저런 일은 범해선 안 되겠다고 공통적으로 본성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거를 하지 말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자연스레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인간관계 여섯 계명들은 모든 인간 공동체들이 적용하는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사람은 한 조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며 인생살이에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진리를 깨달은 결과물입니다. 개인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벽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자 내지는 절대적 원리가 있으리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출현했습니다. 이 또한 창조주 절대자에 의해 피조 된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인지라 자식이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덕과 종교를 고안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에 따라 당신을 경배하며 그 거룩한 뜻에 맞게 살아야만 하겠다는 영적인 갈증 내지 요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일은 결코 없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의 헌법 격인 십계명이 첫 네 계명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 바탕에서 인간관계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고 이 땅의 삶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 도덕과 종교의 한계

문제는 어떤 인간도 모세의 거룩한 율법은 둘째 치고 도덕과 종교가 규정하는 계명조차 제대로 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간단한 가르침조차 아무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 주제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들지 못한다고 정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금한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만큼 완악한 교만 아니 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살이 할 동안 황소 신의 제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방의 우상제사는 음주가무는 물론 성적으로 음란한 교섭으로 끝나는데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격분하여 도대체 웬 우상이냐고 따지자 아론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출 32:22-24)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는 섬기기 싫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근사하게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굴복하여 그가 금을 갖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론 스스로 애굽의 황금 황소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모세 대신에 책임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백성 탓으로만 돌립니다.

나아가 그 금불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마치 도둑이 길 가다 줄이 있어 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 끝에 황소가 달려 있더라고 변명하는

풀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휘 감독 아래에 백성들이 모은 금붙이들을 녹여서 황소로 조각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수많은 백성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후에 온전히 지켜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대적했고 구약 내내 이방 족속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바꾸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썩고 또 썩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의가 이방인보다 전혀 나을 것 없으며 도리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롬 2:23)고 한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는 세상에서 최고로 의로웠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한 규율도 당연히 인간사회에선 반론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예사로 교제했습니다. 인간사회 최고의 선도 당신의 관점에선 완전히 틀렸다고 선포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숨어있어야 할 세리와 죄인들이 성큼 앞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시쳇말로 예수님 ‘뻑’ 믿고 당당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이 악인으로 취급 받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만 통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나아가 모든 인간을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최고로 선하다고 착각하므로 하나님도 자기 기분에 차지 않으면 거역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일 뿐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알기 쉽게 비유해보겠습니다. 매일 장소만 다른 진흙탕에서 형제 둘이 뒹굴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말 조금 잘 듣고 공부 조금 잘하는 형제가 자기 옷은 양털처럼 희다고 하고 공부 못한 형제 옷은 너무 더럽고 추해서 밥도 같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같이 밥 먹자라고 권해도 공부 잘하는

형제는 죽으면 죽었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다 못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려고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형제인 유대인들더러 공부 못하는 형제인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줄 테니 제발 너희도 그들처럼 내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예수 외에 아무 소망이 없다.

작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두 예방조치라도 엄격히 지키면 사정은 급속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마저도 귀찮고 싫어서 지금 같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TV 뉴스로 보고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에 지키지 않겠다는 미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이런 점을 계몽시키고 행동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단체마저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쇼핑몰과 슈퍼마켓에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쓴 사람들을 큰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선량한 고객들은 그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고 만류하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비유컨대 에이즈 보균자가 무작위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가져서 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단체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젠 상식과 교양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희생과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첫 걸음도 모르거나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다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지 생각하면 절망감만 앞서고 저절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 변함없이 똑 같았습니다. 며칠 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같은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이라고 평할 정도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동안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던 미국이 도리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니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일이지만, 트럼프는 삼천 오백년 전 아론과 똑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를 열렬히 지지하는 백성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국회로 진군하라고만 했지 폭력을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한 정파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데모를 해도 되지만 평화적으로 하고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는 당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큰 잘못이라고 야단쳐야 하는데도 여론이 들끓자 서른 몇 시간이나 지나서 마지못해 짧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치웠습니다.

데모 군중이나 트럼프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나쁘며 자유에는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합니다. 인간 본성의 추함 완악함 무지함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판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구원의 은혜 외에 과연 인류에게 어떤 해결책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스크 쓰기와 모임 금지 같은 조치는 자기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증상 감염이 많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런 극단주의자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인 마스크만 제대로 썼어도 세계 최강국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감염자 사망자를 냈다는 오명은 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타심이 급속히 사라진 탓입니다. 자기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비뚤어진 개인주의에, 찰나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따라 행동하는 쾌락주의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바리새인과 세리

죄송하지만 교회와 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끝까지 교회에 모여서 대면예배를 주장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 모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로 모이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양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에 바친 고기는 우상이 실존하지 않으니까 신자라도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나 복음의 진리를 미처 모르는 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세상은 왜 자꾸 모여서 코로나 전파에 앞장서느냐 비난합니다. 대면 예배가 불안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신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걸리게 지켜주신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바울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신자들을 품어주고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까지 배려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정부로선 대면 예배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금해달라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와 신자들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적인 규정과 관습에 완전히 묶여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인 교회 밖 사람은 물론 주안에 있는 같은 형제까지 비난하기 바쁩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아니 바울만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흥 같았던 자기 죄부터 양처럼 희게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상반된 모습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눅 18:9-14) 바리새인은 실제로 자기 말대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대신 금식하고 십일조 바치면서 율법대로 의롭게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마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세리와 비교해 자기는 의롭고 세리는 악하다고 했기에 정작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고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적국 로마를 위해 봉사했고 알게 모르게 부정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들을 상종조차 않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받지 못하는 저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자신의 내면이 한 순간이라도 평안한 적이 없이 죄책감 자책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 이 죄인을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믿음으로 새해 출발

믿음의 출발은 이 세리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종교로는 절대로 선해지지 않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종교적으로 거창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각자가 당장 저부터라도 자기만 높이려 들고 남을 깔보려는,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내 속의 본성이 너무나 추악하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의로운 일마저도 엄격히 따져보니 내 유익, 감정, 자존심, 욕심 등을 채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내 진짜 실체를 하나님은 물론 남들 앞에 들키기 싫어서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의로운 척했던 적이 많았다고 솔직히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행했으나 그 숨겨진 본성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마음에 상처를 수도 없이 주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그랬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뺨뺨하게 고개를 쳐들고 저들보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일일이 자랑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도 앎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목회자 중직들이 기독교 교리로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절대 안 됩니다.

신년 초에 잘 믿으면 올해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진 심령을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올 한해에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우리로 범사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인도해주셔서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는 올해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3-7)

## 성경 해석상의 결정적 오류

많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꼭 고쳐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앞뒤 문맥과 연결하지 않고 한 절씩 떼어서 읽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문구나 단어 하나의 뜻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따로 떼어낸 부분에 묶여서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이어서 저작되었기에 당연히 또 반드시 앞뒤로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비록 같은 이야기별로 문단을 나눠놓았어도 여전히 한 문단만 따로 떼서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본문의 뜻은 이해했는지 몰라도 정작 저자가 강조하려는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 격인 1-2 절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게 된 배경과 이유조차 해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하나만 따로 떼서 읽기에 대체로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므로 신자는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치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포함해 세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사회가 엄격히 금지했음에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했듯이 왜 당신께서 그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인간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로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끝까지 찾아서 당신께서 품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일차적으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전체 내용도 신자더러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뒤에서 비방할지라도 당신께선 하늘의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며 식사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두 구절이 별 것 아닌 내용처럼 보여도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큼니다. 성경을 나무인 본문만 읽지 마시고 그 전후를 관통하는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서 전체 숲도 볼 수 있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 **비유보다 주제에 주목하라.**

거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특성을 잘 몰라서 이런저런 오역을 낳습니다. 이참에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지침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유 자체의 의미에 집착해선 안 됩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강조하려는 어떤 주제를 쉽고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체험적 사례를 들어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기능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우리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가 그것입니다. 낮을 보면 한글 철자 기억의 모습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 자를 기억하려면 낮을 떠올리라는 것이지 낮의 모양을 모르겠거든 기억 자를 떠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관한 속담이 아니며 낮은 기억 자의 시각적 예시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낮의 모양은 누구나 익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 속담에서 낮이 가진 역할로 그치고 정작 강조하려는 주제인 기억 자는 따로 있습니다. 비유 자체의 내용만 자세히 해석해서 가르쳐선 안 됩니다. 그럼 누구나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낮의 모양을 다시 설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현장의 청중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추가 설명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별칭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목양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청중들이 양 치는 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유는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로 강조하려는 주제부터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비유와 별도로 가르쳐주셨기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 그 주제를 언급하거나 제자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본문도 비유의 끝에 주제를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7 절)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비유의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미 잘 알 테니 내가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잘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보라.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을 뜻합니다. 그럼 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은 그들과 밥 한 끼도 나눠먹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어딘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율법을 어기느냐 물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마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누가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고 더 알기 쉽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지만 의인인, 정확하게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건강하여서 회개할 것이 없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반대로 죄가 많기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 소망하기에 구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인지라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이전에 말했던 동일한 진리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따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을 베푸는 그분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아니라 기껏 너희 스스로 제정한 규칙을 어겼다고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려 드는데 제발 내 심정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 **일일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최근까지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 저자들에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저자는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모든 진술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면서 비유의 단어 하나하나에 일일이 영적의미를 부여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주제와 아무 관계없는 의미까지 해석자가 임의로 갖다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알레고리칼 한, 우의적(寓意的)인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할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기에 그런 해석 자체는 의롭고 은혜롭게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에 적용하면 낮은 벼를 베는 유익한 도구이나 날카로워서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다시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 진술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며 유익하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억 자를 깨우치는 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비유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성도는 물론 목회자도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반면에 이 비유를 들은 현장의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체험을 많이 했기에 예수님의 결론을 듣자마자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 자체를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리와 죄인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나아올 때에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영적으로도 뛰어나서 지도자가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 있다고 눈치 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은 비유를 역으로 유추해보면 바로 자기들임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

비유를 주제와 상관없이 일일이 별도의 영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제에 비추어서 역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비유의 더 깊은 의미를 추적하여서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 드린 대로 비유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는 세리와 죄인을, 아흔 아홉 마리 양에는 유대인을, 목자에는 예수님을 대입해서 그 뜻을 살펴봅시다.

양을 한 마리와 아흔아홉의 숫자로 구분한 것은 아무래도 세리와 죄인의 숫자가 일반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과 아흔아홉 번 교제했다면 세리와 죄인은 한 번만 교제했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 혹은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백성의 숫자를 늘리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당신과 동행했던 자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데려가 함께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덜 기뻐하신다고 했지 구원하지 않는다거나 저주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을 상종도 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그들이 당신을 조롱 멸시함에도 당신께선 그들과도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도 당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리와 죄인을 포함한 백 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 마리이므로 충만한 숫자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나아가 온 인류를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쪽에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잘못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번제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삼상 15:22) 그런데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교제 할 때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뜻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씀을 그 전에 하신 적이 없고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더러 형식적 제사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소원하지 않으면 너희부터 잃어버린 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 잃어버린 양의 실체?

이전에 저에게 믿음이 좋은 신자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는 누가 돌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밖 불신자 한 명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양육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불합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유의 해석 원칙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성경 해석의 첫째 원리는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시의 문화 관습 상황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백 마리의 양 떼를 치려면 두세 명의 목동이 필요했고 최소한 양을 치는 훈련된 개라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도 나머지 목동이나 그 개가 양 떼를 축사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청중들도 양 치기 관습을 잘 아니까 그런 뜻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비유에서 아흔아홉 마리 양들도 목자의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단순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은 주로 건조한 광야이고 목초지는 높고 가파른 언덕이나 산지에 있었습니다. 양들이 간혹 계곡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숲속에서 헤매다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자 사울 왕이 크게 염려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동안에 멧돌로 사자와 곰도 쳤으니 골리앗도 그런 짐승처럼 물리칠 수 있다고 담대히 대답했듯이 말입니다.(삼상 17:36,37)

따라서 양은 벌써 죽었다고 단념해도 될 정도이고 오히려 목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양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목자들은 이미 축사로 돌아갔기에 빨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계곡에 떨어졌거나 맹수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양 혼자 걸어갈 수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죽었던 양이 다시 살아온 셈이니까 비록 한 마리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해 있는 그들의 바로 그런 위치 때문에 혼자선 도저히 다시 목자나 기존의 양 떼를 찾아와서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들과 유일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참 목자인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깊은 흑암의 계곡이자 무엇이든 포식하는 맹수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러하듯이 이 비유 또한 예리하다 못해 아주 풍자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완악함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므로 우리 심령을 깊숙이 찔러 쪼개는 권세가 있습니다.

## 로마를 인정해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이방인과 교제를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인 로마 제국을 인정해준 셈입니다. 실제로 한 번도 로마를 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식사 교제할 때 손을 씻지 않았고 부정한 음식들도 양껏 먹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함께 식사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고쳐줄 생각도 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은 정말로 신성모독자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드러난 신적인 권능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껏 율법을 핑계 삼아서 말로 예수님을 울무에 걸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참히 패배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치와 종교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잔뜩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급격히 늘어나서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없애버리려고 작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모욕을 되갚아주려고 수치스런 십자가에 메달아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평소에는 민족의 원수라고 증오하고 정죄하던, 지금도

예수님더러 식사 교제한다고 자기들이 비방했던 세리와 죄인보다 훨씬 더 사악한 로마 당국과 헤롯왕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되어져 갈 사항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 아시고도 십자가로 올라가는 모든 일정과 과정을 당신의 완벽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께서 주도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기 생명이 위험한 줄 알고도 기어이 양을 찾아오는 참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더라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너무 기뻐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세리와 죄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가 자기들을 정상인 취급해서 교제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들을 끝까지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선 평생을 하나님의 반대편인 사탄의 자식으로만 취급되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들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마에 분홍글씨로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라고 찍혀버렸기에 인간 세상에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그저 살아가야할 신세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쓸쓸히 죽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는 길만 남았습니다. 진짜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은 인간의 잘못된 관습일 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아무 관계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들도 원래 백 명의 양떼에 속했다가 맹수 같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꾀방으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었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나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비방 멸시에 주눅이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앞에 꿈쩍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들은 예수님 권세에 힘입어 당당하게 집회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반대의 의미로 깨달은 그들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비로소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실현해줄 것이므로 그분만 따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랍비와 함께 한다면 유대 사회의 어떤 비방 멸시 핍박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기에 도리어 참 목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지난 고난조차 감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 예수님 외에 소망은 없다.

코로나로 작금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궁핍해졌을 뿐 아니라 정서적 혼동에 빠졌고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쳇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멘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TV에 관광을 홍보하는 광고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사회적 면역이 실현되면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집에 갇혀 격리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여행부터 갈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서 빨리 그렇게 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도도 하나 접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CNN TV의 뉴스에서 한 여기자가 사람들이 병원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죽어간다고 눈물을 흘리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는 코로나에 무심한 자들을 크게 원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간의 완악한 민낯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휴지나 손세정제와 생필품을 먼저 사재기 하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우울증과 분노에 휩싸여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 바쁘고 사람들의 마음도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사태가 오래 지속되어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자 정부의 비상조치가 자기들만 차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 어려운 사정은 딱하지만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만 앞세우는 뿌리 깊은 인간의 이기주의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희생해야 할 교회도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들만 있는 불신 세상에 목숨 걸고 끝까지 찾으러 가야 하는 목자 역할은 잊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잘도 해석하면서도 말입니다. 서로 도와야만 할 비상사태의 와중에도 이런 판국인데 정상생활로 돌아간다고 과연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여행 광고가 노리는 것처럼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는 듯이 신나게 놀고먹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비유에 따르면 세리 같은 직업이나, 이방인 같은 인종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정치적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다 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인생이 참으로 덧없고 죽음 앞에 너무나 연약하며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인간에겐 끝까지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절망을 맛본 자만이 예수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계곡 밑에서 맹수의 아가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양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건져주셨습니다. 천국의 큰 잔치가 바로 나로 인해 벌어졌고 지금도 그분의 크나큰 기쁨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영원히 변함없는 기쁨 안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릴 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는 물론,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딱딱한 교리를 전하기만 해선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그 기쁨이 너무 좋고 귀해서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나서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도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목자이신 주님과 멀리 떨어져 다시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기뻐하신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8-10)

##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관통하는 의미의 흐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문의 해석조차 저자가 의도한 내용과 달라질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과의 교제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께서 그러시는 이유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세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 비유에서 되찾는 대상이 각기 다릅니다. 첫째 비유에서 양은 가축을, 둘째인 본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재물을, 셋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가족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가축보다는 재물을, 또 재물보다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므로 그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을 모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셋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 주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꾸중한 것입니다. “너희도 그 셋을 평소에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을 것이고 찾으면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했을 뿐인데 왜 너희가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렀더니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율법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 12:11-13)

인간이 짐승이나 물질보다 소중한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회에서 소외되어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 비천한 사람을 정말로 너희가 소유한 가축과 특별히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아무도 상종 않으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가축을 잡고 돈을 소비해서라도 한 끼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안식일에 양을 건지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 비유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찾으면 크게 기뻐하시는데 신자더러 그런 기쁨에 참여하고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이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 결혼반지를 찾는 여인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둘째 비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여인 즉,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인데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로마 화폐로 바꾸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과 맞먹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끝까지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에선 하루치 양식을 조달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면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기도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인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막 12:42) 고드란트는 드라크마의 1/64 정도였으니 한 드라크마만 해도 당시로선 아주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은 것은 당시 관습으로 따지면 단순히 돈이 없어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사랑의 증표로 열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주면 여자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매달아 장식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서약하는 결혼반지인 셈입니다. 줄에 꿰었으니까 가끔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열 드라크마라고 말했을 때 현장의 유대인들은 그 머리띠를 떠올렸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린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반지를 잃어버린 여인에겐 결혼생활 나아가 인생을 잃은 것 같은 안타까움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 할 것이며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현상금도 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일반적으로 창문이 거의 없는 방 한 칸에 부엌 거실 침실을 함께 쓰는 구조로 주로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컴컴할 수 있고 먼지가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면 등불부터 켜고 혹시 먼지에 덮였는지 모르니까 일일이 쓸어내야 하고 필요하면 집안의 모든 가구를 들어내야 합니다. 기어이 결혼반지를 다시 찾은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기쁨으로 세리와 죄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회개가 아니라 회심

반면에 잃어버려진 양이나 드라크마로선 목자나 여주인을 스스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선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7, 10 절)고 합니다. 양과 드라크마 스스로는 목자나 여인을 찾아갈 수 없는데도 세리나 죄인이 회개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悔改)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여서(悔) 고쳐나가는(改) 것을 뜻합니다. 만약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구원과 반대되는 스스로 노력해서 취득하는 자력(自力)구원이 되고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앙으로 변질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로 구원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 원어 메타노이아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먹는 것으로 한자로 치면 되돌리는 '회'(回)와 마음 '심'(心)을 합친 회심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인간 중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서 인간만사를 통치하시므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상황에 비추어보면 회심한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평소부터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에게 지은 죄가 많다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지라 양심은 그런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가르침도 없었고 그들의 규정이 옳은 것도 같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구원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 정말로 충격적인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마 9:9) 세리인 마태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로 불러냈습니다.

이는 당시로선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식사 교제하는 것만도 추궁당하고 함께 출교당할 수 있는데도 랍비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사회에 금방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일개 이름 없는 목사가 소속 교단에서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당장 목사 자격은 박탈당하고 이단으로 공고되어 파문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도 그 부름을 받자마자 돈을 많이 벌고 로마 당국의 권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차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마태의 심령에 강력히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마태 쪽에서도 자기 직업에 대해 크게 회의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받고 있는 유대사회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얼마 후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이 많이 참석한 식사교제를 했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과 본문과 동일한 논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태는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으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무엇보다 외적 조건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동료 세리와 같은 처지의 죄인들에게 이 유별나고 긍휼이 많은 랍비에 대해 넘치도록 자랑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 교육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스승이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아 교제를 나누니까 제자 마태도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세리와 죄인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 잔치 이후로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6)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신령함과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교만이 아닙니다. 율법에 능한 랍비 출신인지라 이전의 그런 교수법을 연상한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바울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차원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새 사람으로 변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신자라면 주님의 본을 따라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식적 형식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모아서 종교적 권력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이 자기들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뒤에서 비난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고 세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로선 이 분은 끝까지 자기들 편에 서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함께라면 자기들이 어떤 비방 멸시를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맨 앞자리로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갑에게 항상 당하기만 하는 을의 입장에선 두려움이 몸에 배어서 함부로 갑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타성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이 넘쳐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으려고 맨 앞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예배당 맨 앞에 앉는 사람이 담임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려는 열성과 소망이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껏 어떤 랍비도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이 온유하고 합리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율법도 아주 잘 가르치는 랍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도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초기인 산상수훈을 들을 때부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 7:29)고 하면서 크게 놀랐지 않습니까?

똑같이 모세 율법에 관해 가르쳤는데도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평강과 기쁨이 세리와 죄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요컨대 세리와 죄인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해줄 리 없다고 포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도 아주 기뻐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했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느낀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꿔준 것입니다. 따라서 7 절과 10 절은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회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맨 앞으로 나왔듯이 주님의 그런 기쁨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하기에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신부인 신자

이 드라마의 비유는 결혼 풍습에 비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유비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으로 맺어지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로 즐거운 일입니다. 현실에선 결혼생활이 많은 난관과 다툼을 동반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정말로 하나 숨길 것 없이 평생토록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불렀듯이 서로를 자기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해서 구세주로서 당신의 신부를 찾으려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된 것입니다. 양의 비유에선 목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찾아오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면, 드라마 비유에선 그렇게 찾아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평생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매일매일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비유에선 똑같이 찾는 자 즉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만의 절대적 주권으로 택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교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늘의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회심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유대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조차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훼방하여서 그분의 큰 기쁨을 큰 분노로 바꾸는 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차별한 것은 자기들이 그들에 비해 조금 우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은 물론이고 인간됨의 성품 품위 등에서 자기들과 완전히 다르고 도저히 따라올 수준이 안 되기에 밥도 함께 먹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 상을 뒤엎은 크나큰 죄인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공사역 중에 유일하게 그들과 또 그런 행위를 크게 야단친 것입니다.

##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구원은 인간 쪽의 선행과 치성으로, 나아가 간절한 회개와 뜨거운 믿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에게 외모로 구원 받을만한 기쁜 점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만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선물로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 받는 신자도 당연히 주님이 세 비유에서 가르치듯이 외모로 남을 차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성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남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연습을 한 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과 성도를 외모로 차별한다면 사실상 믿음이 없거나 완전히 힘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활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받아 본 것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아무 소망 없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짜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는 같은 선물을 받은 자이고 불신자는 아직 그 선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잘났다고 남을 차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다 신자가 된 후에도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과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나를 정말로 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전히 고달픈 현실 삶에 묶여 있고 어리석고 연약한 본성에 제한 받는지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종종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삼년 내내 주님에 대해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는 꼴입니다. 신앙상의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고 예쁜 구석이라곤 단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위는 물론 자존심 다 없애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에선 권세 있는 말씀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몸 전부를 던져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셨고 당신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도 그 기쁨은 단 한 치의 감소가 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는 그분을 대적하며 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은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있던 처음 믿을 때보다는 우리를 분명 더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도 사실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생각과 노력으로 회개한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뒤집는 회심의 은혜를 주셨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찾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로서 한 집에서 스물네 시간 삼백육십오 일을 함께 지낸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인간을 향한 기쁨은 우리가 추측 기대를 넘는 것은 물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을 기뻐하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언제가 죽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코로나로 인해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다들 목숨이 너무 연약하며 아무리 재물과 권력이 많아도 스스로 자기 삶과 인생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거나 최소한 탐구해볼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경판매가 늘어났고 영적 문제에 관심이 더 생겼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신자들이 트럼프에 실망했습니다. 트럼프를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했기 때문인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트럼프에게 실망하게 된 것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죄에 찌든 한 인간이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기쁨을 절대로 소망 혹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에는 해아래서 하는 아무리 거창하고 의로운 일이라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트럼프를 통해서 절감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예수님의 다른 말씀으로 풀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29,30) 세리와 죄인이라도 하나님에겐 들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어도 들풀보다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만 자랑하고 그곳에 모여 제사만 고집하며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규정해서 차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아닐지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아니 평생토록 이런저런 현실적 고난이 겹칠 것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생겨도 내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더욱 아름답고 활기차고 기쁘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도 오히려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결혼한 증표로 열 드라크마로 꿰어 만든 줄을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잃어버릴 리는 전혀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거나 자기 자존심 세우려다 줄이 터져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끝까지 찾아내어 그 줄에 다시 꿰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과 인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아버지를 죽여 버린 둘째 아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눅 15:11-14)

## 두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읽는 신자들의 반응이 윤리적 차원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도 세상 쾌락과 죄악에 젖어있었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크게 불효했던 탕자였으므로 이젠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칭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합니다. 후반부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죄를 범하지 않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든지 더 정확하게는 첫째 아들도 영적으로 떨어져 탕자니까 '두 탕자와 아버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둘째 아들이 범한 잘못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뿐입니다.(13 절)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었으니까 그 재산은 아들의 것입니다. 낭비하든 늘리든 자기가 책임질 문제이지 도덕적으로 따져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원어의 뜻은 무절제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윤리적 죄도 범했겠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앞뒤 문맥에선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둘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한 내용도 과거에 지었던 도덕적인 죄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믿은 후에나 착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로 삼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런 가르침과 계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 듭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회도 초등학교도 다 배운 것을 어른들을 상대로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적 선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있으니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데도 좋은 신앙이라고, 최소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종교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첫째 비유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드라크마의 비유에선 여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한 신자와 평생토록 결혼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서 친밀하게 보호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긴 이 비유도 당연히 앞에서 말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한 것이며 그 기본 골격도 같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탕자인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예수님 쪽에서 탕자인 그들을 먼저 되찾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적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탕자 쪽의 회개만 보이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들로 회심케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요컨대 탕자의 비유도 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과연 그러한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교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킨 어떤 불효자식 개인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좁게 보면 유대사회에서 장로들이 정한 규정으로 출교당한 자들이고 첫째 아들은 그렇게 출교시킨 유대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제국의 공무원으로 유대민족의 배반자이자 매국노로 취급당했으므로 죄인인 이방인과 같은 부류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확장하면 둘째 아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뜻하고 첫째 아들은 그들을 차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세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둘 다 원래 소유주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에서 양 백 마리는 목자의 소유였고, 둘째 비유에서 열 드라크마는 여인의 장식품이었습니다. 본 비유에서 두 아들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 비유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주제도 예수님이 그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아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셋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던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다시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추궁하지 않고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많은 허물이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 돌아오자 곧바로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 시기하여 크게 화를 낼만큼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기쁨을 정확히 헤아려서 신자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에 성실해도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 성령님의 인도로 점차 악은 멀어지고 선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주기도 합니다.

사탄도 우리더러 죄를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자들이 아무래도 죄를 멀리하려 노력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가 예수님과 교제, 특별히 동행하는 일에 훼방을 놓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인간적 본성을 부추겨서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골고다 십자가 은혜를 회상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평생토록 행할 씨름입니다.

## 결정적인 죄는 없다.

둘째 아들은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자기 재산 관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시발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12 절)라고 말한 데서부터입니다. 그 말 안에 그가 범한 잘못의 본질이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유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자선재단에 헌납하고 자식더러 자수성가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선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면 감사히 받는 것이지 미리 내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당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을 미리 작성해도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시행하라는 것이 통례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가 없는 것 혹은 죽은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생각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몫을 받자마자 며칠 뒤에 갔으니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엮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단단히 작정하였고 기회를 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이 평소부터 품었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은 물론 아버지의 뜻과 감정이 어떠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

다. 물론 당시에 자식이 특별한 사업을 시작하면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활용만 하도록 했지 소유권은 여전히 아비에게 속했습니다. 자식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했으며 사업에서 나는 이익금도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관습과 상식을 어겼습니다. 오직 혼자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살아본 결과는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끝났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알거지로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청운의 큰 꿈이 있었고 그럴싸한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스스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정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훔쳤거나 강요하여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기 앞으로 돌아올 유산을 단지 시간적으로 미리 받았을 뿐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재산이 줄거나 망하면 미리 자기 것부터 챙기고 도우지 않았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 재산이 늘어나도 더 받지 못하는 손해도 감수한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으로 사업하면서 허세도 부리고 이런저런 세속의 쾌락도 즐겼을 것입니다. 그가 소비한 돈으로 이득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밥도 자주 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원래 돈을 버는 데는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돈을 쓰는 데는 나쁜 짓을 할 소지가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탕진한 것이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계제가 아닙니다.

## 아담의 원죄

그럼 이 아들이 범한 잘못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범한 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다른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으나 선악과 하나만은 금지시켰습니다.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아담과 다투실 리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미리 다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은 두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선악과 금령의 진짜 의미도 그것을 따먹으면 벌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따먹지 않을 때에 풍성한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물론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로 당신께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진실하게 가꿔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당신께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인지라 당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사려 깊은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다고 자꾸 충동질 했습니다. 도덕적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부추킨 것입니다. 점차 아담은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지고 자기 혼자서 맘껏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겁도 없이 뛰쳐나갔는데 그의 앞에 기다린 것은 처절한 실패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원죄 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렸으니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돈으로 형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유대인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소비해 무일푼이 되었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로는 이방 불신자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행 17:24-29)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선한 것을 그분이 공급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행한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즉,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그분이 인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발 그 한 분 하나님께로 겸허히 돌아오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인간은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에 맞게 번창하도록 가꿀 수 있는 사용권만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신 8:18) 그런 믿음이 있다면 청지기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여 얻은 열매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므로 첫 열매와 십일조로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에게 당연히 또 반드시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임합니다. 인간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첫째가는 축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감으로써 아버지를 자기 삶과 존재와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결국 그가 탕진한 것은 재물보다는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 둘째 아들 탕자였던 목사

솔직히 고백하면 저야말로 이 둘째 아들과 구체적인 측면까지 흡사했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하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여 보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말라.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를 씻으려면 왜 꼭 십자가에 죽은 로마 사형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물론 그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가 그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온유하며 착했고 종종 남들을 성의껏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침 비유처럼 차남이었고 아버지가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삼십대 초반의 저의 시건방졌던 요구에도 아무 말씀 않고 사업 자금도 대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성공할 리 없었는데 끝까지 자존심은 남아서 알거지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삶이 너무 고달파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로마서 강해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알게 되자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한 죄인인지 철두철미 깨달아졌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남들에게 비교적 잘하고 그들도 나를 좋아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거나 내 의를 자랑하는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느라 오히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힌 적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이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또 그들이 정작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단 한 번도 배려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사랑을 알게 되자 비로소 남을 위해서 생전 처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몰랐다면 평생토록 하지 않았을 또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저를 보고 놀랄 정도로 오묘한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회심시켰고 계속 당신만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크게 깨닫고 회개한 것은 바로 허랑방탕했던 잘못이었고 그것이 가장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난잡하게 놀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너무 헛되게 허비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소치인지

몰랐습니다. 내 잘난 것 몇 개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인생을 아주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인생 자체에 대해서 깊은 갈등과 고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재능은 물론이고 정말 어리석고 아무 것도 모르는 저에게 사업자금까지 대준 아버지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마련해주신 섭리인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을 남들보다 엄청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제 맘에 없으니 돈이 인생에 기쁨 행복 만족 의미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 허랑방탕한 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세리와 죄인들도 경제적 궁핍이나 도덕적 악행으로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고 그분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간이라면 절대로 범해선 안 되는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는 정반대 쪽으로 잡았고 필연적으로 그 인생은 허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 권세 지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없이는 그 인생에서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선 아무 소망이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한 세리가 저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만 했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잘 준행했으니 그에 합당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만사를 통치한다는 진리도 믿지 않는 셈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도덕적 종교적 실적을 하나님더러 채점해서 그에 맞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을 자기 실력으로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 간섭 통치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결과가 경건하고 의로워도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행위의 양에 비례해서 하늘 창고에 마련된 축복을 계산해서 내려 보내는 창고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 없고 자기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만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은 없이 의인이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니까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와 사실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돈이 보장한다는 생각은 백 퍼센트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돈이 나쁘다거나 멀리해야 한다거나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더 좋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시간 낭비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 감사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큰 혼란과 고난과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도덕 윤리 종교에 대한 인식은 바로 앞의 세대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죄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새로운 세상이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격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도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인간인지라 스스로 인식은 못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도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앎으로 인해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참 생명 안에서 그분과 비밀스레 교제하여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복음서가 증명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허랑방탕하게 보낸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때로 옴처럼 이해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그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뜻은 풍성히 넘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매순간 이 진리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둘째 아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14-19)

## 여타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때까지 교회 밖에서 보며 짐작했던 것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도 여타 종교처럼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과 훈련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도덕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다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절대자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기에 사후 심판은 염려하지 않았고 현실고난도 자기 실력과 의지로 스스로 극복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사대종교 중의 하나요 예수는 그 인간 창시자라는 아주 단순한 지식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다 간증 책을 쓰고도 남을 만큼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고나선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저 같은 완악한 죄인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도덕과 종교로 접근할 차원이 전혀 아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영원한 참 생명이었습니다.

나아가 제가 예수를 믿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기에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제 스스로의 각성 판단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저의 심령에 대고 계속 말씀하셨고 때가 차매 교회로 인도했고 당신의 십자가 공훈 앞에 눈물로 앞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 놓아두었으면 저는 절대로 제 발로 교회로 찾아갈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 교만이, 정확하게는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할지는 물론 제가 판단 결정한 것이지만 그런 판단과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선도적 능동적으로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사회가 엄격히 금지하는 세리와 죄인들과의 교제를 당신께서 서슴없이 행하는 이유를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비유의 주제와 내용은 당연히 같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절대로 스스로 목자와 여인을 찾아갈 수 없었고 목자와 여인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되찾아왔습니다.

그럼 탕자의 경우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그가 주도적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설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은 자기가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밀히 이끄셨던 것입니다.

##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도 못 채는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니라 엄연히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말하지 않고 그의 요구대로 따라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요구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버렸다면 무일푼으로 다른 나라로 혼자서 떠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눠주었기에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들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가 순순히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부터 아들의 철학, 가치관, 인생 목표, 삶의 방식 등을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순히 당신의 뜻을 따르며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아무리 타일러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그의 몫이 될 재산입니다. 아버지로서 평생 동안 아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누르고 아비 밑에서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껏 살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미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 붙들어두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아버지가 안 죽나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아버지로서 아들의 성격, 자질, 장단점은 물론 떠날 당시의 상태를 잘 알기에 결국은 돈을 다 낭비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아들이 삶에서 처절한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까지 다 계산한 것입니다. 아들에겐 그 실패가 당장에는 큰 고통이 되겠지만 그 이후의 인생에는 큰 유익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아담이 거역할 줄을 아시고도 선악과 금령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자유의지를 주신 뜻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20 절) 또 당신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야단은커녕 그간의 사정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께로 겸손히 돌아왔다는 사실만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아버지가 주관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당연히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일차로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동료와 죄인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했고 그 이후로 주님과 계속 교제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내지 않았다면 유대 사회의 모든 여건상 그들이 먼발치서 말씀을 들어도 맨 앞으로 나올 생각은 결코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완전한 실패를 겪기 전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절하게 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도 여전히 아버지의 심령이 어떨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만 주어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19 절) 아버지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며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은 심사는 짐작조차 못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분별 판단 선택 결정 시행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이 아버지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들의 유익을 위해 세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와 엮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 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 흥년 후에 비로소 궁핍해진 아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이 비유도 우리의 심령을 찢어 쪼개어서 당신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만듭니다. 인간 랍비의 이성적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불효한 아들만 보이고 그가 자기 잘못을 회개했다는 정도에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이 들립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의도된 영적진리가 곳곳에 보석 같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14 절인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없애면 이미 궁핍해진 것인데 크게 흥년이 들자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적게 망했고 나중에 완전히 쫓딱 망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개연성 있게 추론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수중에 재산을 탕진했을 직후만 해도 그 동안 자기에게 신세 진 사람이나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큰 흥년이 들자 숙식을 제공해주던 자들도 도무지 그럴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여유는 없습니다.

이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하루 세끼를 연명하는 일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처지에 빠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치기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흥년이 계속되자 돼지가 먹는 양식조차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 주인은 품꾼으로 채용한 이 사람이 굶어죽던 말든 상관 않고 자기 재산인 돼지는 죽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반길

사람이라곤 하나 없습니다. 그럼 탕자는 바로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 취급을 받은 세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처지가 지금 이 탕자와 다름없다고 말한 셈입니다.

로마는 세리를 단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채용한 것일 뿐 절대로 자기들 동족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소용이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로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다른 뜻은 세리들에게 그들의 직업과 신분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깨우쳐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돼지농장주인도 이 탕자가 외국인이 아니라 동족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박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인 그가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막 5:1-20) 그 지방이 데가볼리였는데 열 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헬라제국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헬라 방식으로 지은 이방인 도시들을 말합니다.

모세율법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예 먹지 않았고 돼지 치는 일도 비천하게 여겼기에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비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탕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도저히 행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돼지를 먹는 것도 부정한데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 **비밀 언덕도 없다.**

그가 처음에 재산을 흥청망청 쓸 때는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임에도 상전처럼 받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들 동료 중의 하나로는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자 안면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생사를 판단 결정 시행하는 기준이 돈이며 그들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돈입니다.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관 또한 같았기에 돈을 잔뜩 싸들고 그런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판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8-30 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스스로 당하게 한다고 선언한 그대로입니다.

탕자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들끓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자기를 돼지치기로 고용한 사람도 아예 무시했습니다. 돼지 사료라도 구걸했다는 것은 스스로 돼지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서 감히 돌아갈 엄두도 못 내었겠지만 그보다는 타국에서 스스로 번듯하게 성공하겠다고 큰소리쳤던 그 알랑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까닭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다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 시도했지 아버지 집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유가 함의하는 바가 너무나 예리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불신자는 그 인생이 실은 돼지 사료를 먹는 것과 같은데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싫어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사방은 완전히 막혔고 빠져나갈 틈새 하나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굶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발가벗긴 채 광야에 버려진 셈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로소 궁핍해졌다는 말씀은 현실적 경제적 환난보다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파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도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굶을 정도로 큰 흉년이 그가 망한 후에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연재앙의 일정까지 이 탕자를 위해서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더라도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그 본인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큰 흉년이 그에게 사실상 좋은 소식 즉,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곳곳에 이러저런 모양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풍성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대준 사업 자금을 완전히 탕진하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소풍 가는데 김밥도 못 싸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일용할 양식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있었겠지만 손을 벌릴 만큼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런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길이 트였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일이 슬슬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는 은혜였습니다.

저 또한 이 탕자처럼 헛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너무나 완악한 죄인인지라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항복하지 않으니까 쫓딱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내 자의로 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세밀하고도 완벽하게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르고 아니 대적하고 있을 때부터 저를 당신께서 택해서 보호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로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예수님과 동행이 믿음

지금껏 비유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도덕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리는 도덕적으로 따지면 유대사회에서 최고로 악한 민족의 배반자이므로 청산 대상입니다. 죄인인 이방인은 종교적으로 따져서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께 최고로 패역한 신성모독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과 교제하지 않은 까닭도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을 도덕과 종교의 차원으로만 해석해서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을 따르는 믿음을 도덕과 종교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덕과 종교와 담을 쌓은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도덕에 초점을 맞추면 선행을 해야만 안심이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 할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이 결코 성장하지 못하며 거꾸로 최악의 폐해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종교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 활동의 성실성과 자신이 말씀보고 기도한 것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한다고 때를 쓰게 됩니다. 종교 활동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벌 받지 않나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자발적이고도 친밀한 교제와 동행은 뒷전이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의무로 부담만 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평강과 기쁨과 자유라곤 없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세리와 죄인을 도덕과 종교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도덕과 종교로는 분명히 죄인이었으니까 그들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지 한 번도 잘못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도덕과 종교로는 유대사회에선 구원의 길이 전혀 없고 아무도 밥도 한 끼 나눠먹지 않으려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들과 교제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덕과 종교를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니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에서 예컨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율법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선 율법으로 처형시켜야 된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 먼저 치라고 하자 다들 물러갔습니다. 유대인들도 스스로 자기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잘못은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보다는 돈과 아버지 둘 중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돈을 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우고 돈을 주인으로 삼으니 불효라는 도덕적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없애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랬듯이 아들이 택한 돈이 그의 인생을 전혀 기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의 절망으로 빠트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자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도덕과 종교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나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지도 알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처럼 느껴져서 너무 괴롭다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일대일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실토했던 대로 신앙을 유대인들처럼 도덕과 종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예수님이 찾아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전에 지었던 도덕적 죄들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데에 열심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에 비추어볼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거룩한 것은 하나 없이 나오는 것이라곤 전부 죄뿐이라는 너무나 추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동안 자기만 높이려 했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을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뒤집어서 자신의 인격체 전부를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완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나”(렘 17:9,10)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이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추악한 영적 실체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령을 찢어 쪼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긍휼만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만이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두 종류의 사람

사람은 오직 두 종류로만 나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둘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큰 고난을 포함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둘입니다. 자기 인생과 삶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은혜와 권능 아래 붙잡혀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기에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실제 주인으로 모시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스스로 노력하여 어떻게든 형통과 출세하려는 목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형통과 출세가 목표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간혹 신자 중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가 있는데 불신자보다 더 치사하고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돈이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오직 하나님 안에 위치시킬 때만 온전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이방인이 돼지는 살려도 이 탕자는 죽어도 전혀 상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불신 세상에선 돼지 즉, 돈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을 죽이는 곳입니다. 아들로선 신나게 살아보려고 소망을 품었고 또 그럴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그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기 짝이 없었으나 사실은 참 생명은 없고 죽음이 지배하던 곳이었었습니다. 지금 탕자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되살아났습니다. 거기까지 이른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이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나눠줄 때부터 당신께서 살려주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다가 정말로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게 된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실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있으므로 신자는 염려하거나 우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고 살아났다면 하루하루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궁핍해도 정말로 감사할 것들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을 순교로 마감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중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육체적 생명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참 생명인 영혼이 죽고 사느냐는 오직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장 시급하게 인생의 방향 전환을 그분께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 생명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완전한 은혜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온갖 실수 잘못 심지어 죄를 지어도 결국은 주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주십니다. 그분과 원수일 때도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신자가 된 후는 더더욱 그러실 것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은 뻔뻔함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눅 15:20,21)

## 아들을 먼저 알아본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눅 15:2) 그 비난을 듣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 가지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인간 랍비라면 오랜 시간 궁리해도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스토리에다 하나님으신 예수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영적 진리가 풍성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는 기승전결을 갖춘 두 가지 이야기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탕자인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돼지사료조차 얻어먹지 못해 완전히 굶어 죽을 판국이 되자 비로소 고향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 군이 얼마나 많은가”(17 절)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종들로 배불리 먹게 해주는 인자한 분이었을 뿐 아니라 고국에는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려주었으나 그로 인해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자기들이 둘째 아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첫째 아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곧바로 눈치챈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에겐 주님의 비유는 따뜻한 위로가 된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찔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세리와 죄인에 해당되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따뜻한 위로를 받았을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20 절)입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세 비유를 통 털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시력으로 따지면 늙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민 가버린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린 아버지는 그 지위와 재산에 합당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며 아들은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표현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사람이라는 형체까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인줄 당장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면서 집으로 오는 길을 수시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30 여 년 전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서 새출발해보려고 이민 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에게 생긴 일상적인 습관이 아침저녁으로 먼 동쪽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구실을 제대로 못해 걱정만 끼쳐드렸던 저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손자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민 간 나라의 소식을 항상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온 이후로 TV 에서 미국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부모님이 먼저 안부전화를 걸어오셨던 것과 같습니다.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일 사료마저 사람이 먹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기에 돈을 탕진하고 실패할 것을 예상했던 터라 이제 얼마 안 있어 아들이 돌아오리라 짐작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대문에 서서 먼 길을 쳐다보는 것이 매일 행하는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행색이 형편없었을 텐데도 먼저 알아봤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체격, 신장, 걸음걸이, 몸짓 등이 비디오 영상처럼 찍혀져 아버지의 기억에 명료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속속들이 아들보다 더 잘 알지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오래된 노래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아주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짜장면을 하나만 시켜서 아들에게 주고는 당신은 싫어한다고 거짓말 했지만 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커서 철이 좀 들자 비로소 엄마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표피적이고 감상적입니다.

## 진정성이 부족한 회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계기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17 절) 제일 먼저 스스로 돌이킨 내용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으니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긴 했지만 아버지 집의 양식부터 그리워진 것이지 자신이 행한 잘못을 먼저 뉘우치지 않았고 아버지를 떠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18.19 절)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차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경위를 그렇게 변명하리라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은 순전한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분노를 진정시켜보려는 방안이자 핑계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차적인 목적은 품 군이라도 되어서 생존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비록 쫓딱 망했을지라도 자기 재산을 자기 생각대로 소비했으니까 지난 삶에 대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송구한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는 물염치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못 했고 비참한 꼴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고생하고 멀리 받는 동안에 아버지와 형의 생각도 가끔 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가족에 대해선 아주 애뜻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게 지어진지라 잘못을 범하면 도덕적 가책도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나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빈말은 아닐지라도 풍성한 양식부터 먼저 떠올렸으니 이 아들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줄 지에 관해선 전혀 자신이 없었고 단지 일꾼으로 받아만 주어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불효했기에 아들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서 탕진했으니 아들이로서의 신분마저 소진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받을 재산은 없고 온전한 사랑도 기대할 수 없으니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마저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중지 내지 취소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컨대 그의 인생관은 오직 풍부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시행하려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끼니를 이을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쪼박 망한 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때에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것과 똑 같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영적인 갈증도 분명히 있었으나, 그에 대한 진정성과 심각성이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소망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알기에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춰 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일일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현실적 고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병이 낫고 사업이 흥하는 등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선 성경을 자세히 읽거나 배워볼 기회라곤 없으니 너무나 자연스런 생각이고 결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르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큰 복을 주고 그 반대이면 벌을 주는 분으로만 인식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전도하는 주된 내용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니까 일단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막상 성경을 파고 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생명을 살리는 키스

아들은 지금 누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라도 아버지 집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도 굶어서 피골이 상접했고 옷은 다 헤지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먼지를 잔뜩 덮어쓰고 있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이고 몸에서 냄새도 나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안고는 입을 맞추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꾸중을 들으리라 예상하고 잔뜩 기가 죽어서 고개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 처참했던 처지와 현재의 심정을 잘 안다. 늦게라도 너무 잘 돌아왔다. 이제 맘 놓고 푹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것이 그 포옹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고대에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감과 존경을 드러내는 일상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고용주가 품꾼에게 그런 키스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입을 맞춘 것입니다. 탕자가 그 키스에 담긴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아버지의 달려오는 모습과 그 얼굴 표정에 이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분노 야단 추궁 심문 하는 의미는 단 하나 없음도 눈치 챌 것입니다.

그 입맞춤 후에야 아들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21 절) 품 군이 되겠다는 언급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라곤 없는 자기를 전혀 꾸중도 않고 어떻게 다시 아들 취급해주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어찌 나 같은 자를?(Why me?)”이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당신의 행동으로 이미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엔 구태여 말로서 서로 묻고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려고 출발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치사한 변명부터 하리라 계획했으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아들인지라 쓸데없는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키스 한 번으로 완전히 파산 되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지난 세월의 모든 허물도 단번에 지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할 일만 남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계획했던 대로 이전과 같은 잘못은 앞으로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크게 화를 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오해한 것처럼 아버지를 온전한 아버지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만큼 큰 불효이자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잘못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에덴의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잘못이자 그 원죄 하에 태어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저처럼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삼시 세끼라도 해결 받고 싶어서 즉,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인 신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부터 자기가 있었어야만 했던 곳에 이제야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고 저절로 눈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왜 진작 빨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후회까지 됩니다.

현실적 형편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고난이나 질병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던 상태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왔다는 인식이 들며 무슨 문제든 아버지가 해결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해결 안 해줄지라도 그렇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어떤 연유인지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에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다.(히 10:19) 그 담력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 사함을 받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지성소에 희생양의 피를 뿌려야만 했으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막의 휘장 가운데로 길이 활짝 열려졌기에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신자 각자가 성령의 인도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기에 신자는 주님의 평강과 안식에 함께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원죄 하의 인간은 오직 자기만 높이려 드니까 세상은 무한 경쟁을 펼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만한 진정한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자식에게 유산을 절대로 미리 나눠주지 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기 몫을 미리 받으면 효도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받을 몫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잘 섬긴다는 웃지 못 할 슬픈 현실을 반영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천 년 전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마저 돈으로 따지는 21 세기에도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을 생생히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은 돈만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와 관습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면 평생을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갈급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빠져있던 당신께로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탕자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러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하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진실한 고백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하시는 원리를 잘 몰라도 됩니다. 그분의 그분다우심만 순전히 믿으면 성령이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지고 이전의 교만하고 완악했던 심령을 깨끗케 해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탕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친형마저 그를 미워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즉 하나님만이 그를 온전히 사람으로 나아가 아들로 대우해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유대사회에서의 처지가 바로 그랬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처럼 그들과 교제해주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 쓰임 받은 큰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던 자라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도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고, 바울마저 스데반은 물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칭할 수 없고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죄인과의 비교 안 될 큰 죄에 빠진 자들인데도 주님은 사랑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만의 사랑인지라 그들 모두도 “어찌 나 같은 자를?”이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타국에 남아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아버지 사랑은커녕 그 심정도 평생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완악하게 거역하는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돈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때처럼 죽어서도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탄의 나라에서만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십자가 공해를 끝까지 믿지 않아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당신께서 빛으로 오셨으나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요 3:19) 이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에 사탄이 지배한 다른 나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당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 믿음의 본질

비유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게 된 계기가 아주 극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흥년은 고대에선 자주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없으면 돼지 취급도 안 해주는 것이 유사 이래의 인간사회의 변함없는 관습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사실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꿰뚫어 아시고 실패하고 언제쯤 돌아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일 년 365 일 24 시간 즉, 일상적 상황에서도 한결 같이 신자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분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신자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니까 신자도 힘들거나 갈급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께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건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담력, 쉬운 말로 바뀌서 뻔뻔함입니다. 아무리 죄로 넘어졌고 지금도 세상과 사람과 죄악과 사탄이 물고 늘어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일부러 비굴함을 가장 하거나 자기 권리처럼 강요할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들 또한 정말로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긴 것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숨길 수 있다거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죄책감과 자책감에 휩싸여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절대로 주저해선 안 됩니다. 죄를 씻는 문제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문제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있는 그대로 주님께 하나 빠짐없이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모든 수치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이에게 남이 모르는 수치, 억울함, 고난, 자책, 죄책, 염려, 분노 등등 모든 것을 당신께 다 털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분은 내가 심지어 큰 잘못을 범해도 끝까지 내 편이라는 뻔뻔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주저 없이 예스라고 대답 못해도 됩니다. 탕자는 인간사회에서 완전히 실패해 죽기 직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돈과 예수님 중에 누가 진짜 자기 주인인지 여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수시로 돈에 눈길이 가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배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할 세 가지 축복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눅 15:22-24)

자기 몫으로 미리 챙긴 유산으로 타국에서 스스로 출세 형통하려던 둘째 아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큰 흉년까지 닥쳐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굶어 죽을 처지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들 취급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품 군의 하나가 되어서 목숨이라도 연명할 작정이었습니다. 탕자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에 지배 받는 인생을 살았기에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사정을 벌써 짐작하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지난 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참 사랑을 확인하자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회개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또 직접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진정으로 뉘우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최고로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요즘으로 치면 '필레 미농'이라고 불리는 가장 연한 고기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원어에는 그 송아지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의미의 흐름을 감안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송아지를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비천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했던 아들이 최고급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옷과 가락지와 신발 세 가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에게 이 세 선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자라면 이 세 선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자신의 삶과 인생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제일 좋은 옷

옷은 정치적 지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아들은 완전히 거지 중의 상거지 행세였을 테니 품 군들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그 집안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결혼식이나 왕을 알현할 때 같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에 입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 온 것과 같으므로(24 절) 아버지 생애에서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최고 좋은 음식과 의복이라고 해서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선 언제든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해준 것입니다.

최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큰 아들보다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아들이 더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둘 다 똑 같은 재질과 모양과 솜씨로 만든 동일한 옷을 입되 장남과 차남의 표시만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의 아들이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어볼 수 있기는커녕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옷입니다. 지금 아무리 허물이 많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버지로선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들도 이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 새 옷을 입는 순간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최고로 낮은 자리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죽음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마자 최고로 높은 자리로 세워졌기에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만 했던 망나니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효도하며 시키는 대로 성실히 순종할 것입니다. 아들이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호적에 올린 법적 관계에서 몸뚱이만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정신과 영혼까지 포함한 전인격체로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형이라도 간섭 개입 훼방하지 못할 일대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은 형대로 따로 그렇게 하겠지만 마치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자기를 위해 다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흐름을 열심히 쫓아가며 추하게 살았던 흔적과 온갖 죄악으로 누더기가 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돈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교만하고 완악하게 거역 대적했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망의 악취가 온몸에 진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형편이 어떻게 되었던 스스로 인식했던 못했던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허망함의 절정에 이르러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알게 모르게 당신만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 베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다 결국은 우리 속의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오셔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껏 남들 앞에 한껏 자랑하던 자신의 의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썩어 없어질 한갓 쓰레기에 불과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절감시켜 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속속들이 알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통해 절감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기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질 성격 습관 등이 크게 거룩해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인이었던 돈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동안 세상에서 형통 출세하려 스스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헛된 낭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며 실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심으로 회심하는 죄인에게 실현됩니다. 골고다 십자가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겐 예수님의 의의 옷이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않고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신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던 당신의 아들로 바라봐 주십니다. 아들은 설령 잘못을 해도 아버지께겐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식이 먼저 절연하지 않는 한 부자관계는 지속되며 심지어 그렇게 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아픈 멍에로 끝까지 남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한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세대에서 영원토록 단 한 명도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겨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 후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고대의 반지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서 요즘으로 치면 인감도장 대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가문의 자식이라는 표식일 뿐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세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옷과 마찬가지로 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반지입니다. 아버지의 가락지는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갖고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보호 인도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도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돈 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고 더 좋은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회에 끼치는 권세는 물론 가문대대로 쌓은 신용, 가풍, 명예, 규범 등이 갖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대단합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무형의 재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는 힘은 오히려 돈보다 더 큼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은 부자에게 돈이 갖는 효용성 때문에 겉으로만 굽실거리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가문의 반지 앞에는 진심으로 존경하며 순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까지 겹치자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몫의 재산이 하나 없어도 아버지 집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흉년이 닥쳐도 그런 취급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절대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당신이 먼저 죽더라도 아들은 살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문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은 털끝만큼도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도 하나님의 반지를 받아 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택하여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본인이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모든 권능도 함께 임재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신자의 평생 동안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동행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나 메시아로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한 제물로 달려 죽기 위해서 당신을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했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 3:17)라는 선포가 들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이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죄악은 물론 사탄의 노리개 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칠 대적인 죽음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겨내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이미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할 십사만 사천 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666 의 표시가 없는 자를 핍박할 때에도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붙여넣어 주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여겨지고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음모라는 흥흥한 소문이 들려도 신자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와 함께 하는 복음의 권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당당하게 백신도 맞고 두려움에 떠는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새 신발을 신은 아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굼어죽기 직전까지 이르렀기에 틀림없이 신발도 팔아버리고 맨발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신발이 귀해서 노예나 종들은 주로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복할 뿐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대변했습니다.

이제 최고로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셋을 다 갖춰 입음으로써 아들로써 구색에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 이미 아들의 신분을 회복된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입지 않아도 아들로 행세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당신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신적 권능이 함께 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신고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으므로 흑암의 세력에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 자책감에 묶여 있던 과거를 훌훌 청산하여서 더 이상 주눅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문의 아들답게 세상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챙겨서 외국으로 이민 간데다 완전히 쫓딱 망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노심초사 먼 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소문이 인근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피골이 상접한 상거지가 되어서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돌아왔기에 소문이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받아들이고 최고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모자란 사람이라고 뒤에서 속덕거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께서 당하실 수모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아니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도 당신께 돌아올 모든 수모와 핍박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구원 밖에 있었던 자로 취급되었던 그들을 죽였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크게 기뻐하며 식사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런 교제와 본문의 상황을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3-5)

아들로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명했습니다.(출 3:5)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동족을 구원해 내라는 소명을 주고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실천을 위해 애굽으로 담대히 내려갔습니다.

맨발이었던 탕자가 신발을 신음으로써 아들로 회복되었기에 아버지를 위해 아들로써 행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며 보호 인도해줄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못하도록 막을 제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약속해주었습니다. 진리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요 예수님 본인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자도 아버지 일을 행함에 게으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셋을 다 갖추고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솔직히 물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새 옷과 반지와 신발을 다 지니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아들로써의 신분 자격 권위 등에 하자가 생기므로 완전한 아들로 행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 모양새가 어색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의로 덧입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잠시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풀메이커업하고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어여쁜 신부로 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평생에 결혼식만큼 최고의 미남미녀가 되는 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이전의 거지 때의 낡아빠진 옷을 잊지 못하거나 버리지 않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옷을 스스로 빨아서 깨끗케 하려고 합니다. 또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새 옷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반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아무리 해도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 없다고 실망에 빠집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유행에 앞선 최고 멋진 옷을 사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위 예수쟁이들이 입고 있는 유행에 뒤처지고 검소한 천으로 만든 옷들이 너무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세상의 화려한 옷들이 오히려 너무 천해서 보기 싫어지고 주님께 새로 받은 옷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은 영원토록 죄로 더럽혀지지 않으므로 신자는 하나님에게 다시 새것을 받아서 갈아입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입혀준 가죽옷처럼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거나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주는 부모라면 자식의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그 일로 상처받고 좌절할까 더 격려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끝까지 자식의 편이 되어서 깨끗하게 뒷수습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로 그렇게 하신다고 바울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리라고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도 또 사람들의 훼방 멸시가 심해도 나아가 사탄의 음흉한 시험과 유혹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세상 모두가 나를 비방 대적해도 끝까지 내편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장 성숙된 증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마 10:28)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옷으로 이미 갈아입었기에 그분의 권능이 항상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신발을 신고 마음껏 그분의 소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지는 이미 신자의 손에 끼워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주님의 전권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내어야 하고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어가는 일을 막아서 깨끗하게 바뀌나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이전의 헛된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허랑방탕했던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야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세 가지를 다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에 대해선 주님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의 기사가 바로 이 비유가 실현되는 모습을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멸시하고 배척했으나 주님을 만나 새 옷으로 갈아입자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확약하면서 전 재산의 절반을 주님의 일에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맨 앞에서 주님의 비유를 열심히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 후의 삶도 당연히 삭개오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이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선물임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도 처음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여태껏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대면한 체험이 있는 자는 그 존재와 삶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본인은 자기가 이전과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되었고 삶을 꾸려가는 힘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해줍니다. 이전의 삶이 너무 헛되었음을 절감하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이전의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보면 저절로 너무 불쌍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권하고 싶어집니다.

이 탕자는 자기에게 돼지사료도 나눠주지 않았던 자들을 비롯해,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아부하며 따라다니던 그 나라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참 사랑을 받은 후로는 그들도 나와 똑같이 돈만 주인으로 삼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므로 조금씩 불쌍해졌을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이 탕자도 그 나라로 돌아가 선교사로 평생을 지냈을 것입니다.

신자더러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탕자가 새 옷, 반지, 신발을 신었기에 그 집의 아들이라고 못 알아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신자가 구태여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경건을 행치 않아도 평소 사는 모습만 보고도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 사이에 여러분의 현재 평판은 솔직히 어떠한지요?

## 최후의 도피성마저 무너뜨린 바리새인들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눅 15:25-30)

## 전혀 예상치 못한 맏아들의 반응

어떤 이야기이든 결론은 주로 마지막에 나오는 법인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측면에만 주목하나 오히려 본문에 드러난 장남의 태도와 그에 대한 아버지 말씀에 그 해석과 적용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아들이 둘째 아들에 비해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짓을 보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근신을 시켜도 부족할 텐데 큰 잔치부터 열어주니 화가 날만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 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그 잘못이 너무 큼니다.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이 큰 아들만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드러내는 성경의 기록도 드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아버지가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형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정미하고 예리하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실수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평소처럼 밖에서 일하다가 식사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아버지로선 그 시간을 아니까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주제와 맏아들의 반응으로 판단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형이 동생을 아주 싫어했기에 아버지로선 잔치를 벌인다고 미리 알리면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왜 이리 집안이 소란한지 이유를 물어 봤습니다. 종은 이민 갔던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할 형이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일상적인 형제 관계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동생이 이민 간 나라에 큰 기근이 닥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생사를 몰라 애를 태우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종들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맏아들만 화를 내고 집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싫어했고 화가 났어도 동생이 어떤 물골로 돌아왔는지 확인도 할 겸 잠시 형식적인 인사는 나눠야 합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려준 것은 아버지이지 동생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했지만 어쨌든 동생에게 돌아갈 몫이지 자기 몫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밥은 먹어야 할 판인데 그조차 마다하니 평소에 동생과 거의 원수 사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이 그런 형과 매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유산을 미리 챙겨서 외국으로 이민 갔을 것이고 또 형제간의 그런 불화를 아니까 아버지도 허락해주었을 것입니다.

##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장남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오고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권했다는 동사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곁에 와서 친절하게 여러 번 타일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집으로 들어갔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는 여러 해 아버지께 순종했음에도 이보다 훨씬 못한 잔치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자기 말에 자기 생각이 담겨 있게 마련이니 그런 불만을 여러 해 동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 잔치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동생에게 살진 송아지 잔치를 해주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동생이 외국에서 혼자 쓸쓸히 살다 보니까 창녀와 관계 맺는 등 분명히 윤리적 죄들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던 재산을 오직 주색잡기에만 탕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돈이 떨어진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었고 흥년이 왔을 때에 돼지치기 일자리도 못 얻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했다(13 절)고 반성한 것도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동생이 사업을 도모하다가 돈을 잃은 것이 훨씬 많을 텐데도 형은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윤리적 잘못이 덧보이는 창녀를 들먹인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려다 보면 작은 잘못을 키우거나 없는 일도 지어내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만에 하나 기생과 놀아나는데 돈을 다 탕진했다 쳐도 동생을 송아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살진 송아지라도 한 마리 송아지일 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동생인데 형이라면 당연히 반기거나 최소한 안부는 살펴봐야 합니다. 집안의 많은 종들과 잔치에 초대된 이웃들이 이 형제들의 관계는 물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뒤에서 숙덕거릴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겐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기쁨이 너무 크기에 창녀와 놀아난 잘못은 아예 무시할 정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창녀에게 아들까지 낳아서 다 함께 왔어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았고 그녀가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들까지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해주었습니다. 고멜과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호세아는 깨달았기에 그분의 선지자로서 기꺼이 그 사랑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그동안 육신만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 온전한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평생 한 번 있을 잔치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장남이 결혼해서 자기 아들이 이 동생처럼 되었다면 똑같이

잔치를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가 되어야만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합니다.

둘째 아들은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 군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끝까지 아들로 사랑하는 그 심정을 전혀 헤이라지 못했는데 큰 아들도 그 과정만 달랐지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아버지께겐 둘 다 똑같은 탕자일 뿐입니다.

## 동생을 살인한 형

큰 아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동생과 밥도 한 끼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동생과는 아예 상종도 않겠다는 것으로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아들이라고 멀리 차별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잔치를 받을 자격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국에서 굶어죽었어야지 왜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순간 상대방부터 살인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은 이 탕자 동생과 형제로 엮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 관계조차 형성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아들에게 동생은 이민 갈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동생이 아니었고 지금도 같은 아버지의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생을 살인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반지와 새 신발을 주었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동생을 진짜로 죽이려들지 모릅니다.

가인이 친동생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된 것 하나 없는데도 살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둘째아들이 큰아들에게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할까봐 멀리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동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가인과 동일한 본성에서 나온 살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 속담대로 남이 잘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에 실패하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돌아와 인생이 뒤집어져야만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님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도 겨우 생기는 것입니다.

말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가르치게 된 계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는 밥도 한 끼 같이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칭찬과 존경받는 이들의 영적실상이 가인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고 그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대해 계시해주었는데도 유대인들은 비유의 말아들처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 세리와 죄인이 부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아들은 창기와 노느라 돈을 탕진했어도 살진 송아지를 먹고 있는 동생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새끼조차 즐기지 못했던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뜻이 일차적이지만 이번에도 숨겨진 본심이 은연중에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도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신나게 자기 멋대로 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세상에서 풍요롭게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던 것입니다. 세리는 부자였고 이방인들은 도덕적 제약이 없다시피 하니까 맘껏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리는 당시의 모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말아야 할 일입니다. 생존이 최대과제였던 시대라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직업입니다. 풍요를 누리면서도 막상 민족을 배반했다는 암심의 가책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이 자기들과 식사교제도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되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은 물론 장로의 유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도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선고 받아서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식사라도 나누고 싶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런데도 둘 다 완전히 정죄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이 형과 평소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한 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넘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로선 인간에게 따돌림을 당한 위에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멀리 배척 받아도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인간은 구체적인 인식은 못해도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을 지향하게 됩니다.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하늘은 알아줄 것이야! 내가 죽더라도 하늘이 대신 원수를 갚아줄 것이야!” 등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하나님마저 너희를 저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최후의 도피처마저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해버리는 가공할 폭군으로 비하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크게 먹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 만사를 그때그때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악 간을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자기들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세리와 죄인이 행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그들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로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날 때부터 붉은 뿔을 단 마귀의 자식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식인 자기들과는 다른 나라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지 않았기에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사탄의 나라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나마 흉년이 닥쳐서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아예 법으로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비유에서 동생은 사람들에게서 아무 소망이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여전히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만 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동생이 최후의 도피처로 가려는 길마저 막은 것입니다.

## 하나님도 야단치는 큰아들

놀랍게도 큰 아들의 잘못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가 불평한 내용을 알기 쉽게 바꾸면 지금 아버지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창녀와 돈을 탕진한 저 천하의 죄인을 아들은커녕 사람 취급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아버지를 야단친 것입니다. 아버지도 내가 정하는 기준과 규율에 맞아야만 아버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마음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 죄의 여파로 형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와 동일한 과정을 바리새인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현실적으로 형통케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들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세리와 죄인을 살인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인과 달리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그 죄를 경시해선 안 됩니다. 구원의 최후의 도피성의 정문을 자기들이 가로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했으니 그 생명을 영원히 죽여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찾아서 구원을 주시려는 예수님과 성령을 훼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줄개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유일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감히 다른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부터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롬 2:1)고 통박했습니다. 이어서 율법을 말아 가르쳐야 할 자가 오히려 소경의 길을 인도하며 스스로 자신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 2:20-24)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물론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을 미리부터 죄인이라고 딱지 붙여서 상대도 앎으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 너무나 교만하다 못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이 정해 놓은 식사교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예수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온전한 인격을 갖춘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당신만의 기준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녀 세리 가난한 이방인 과부 같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인격 대 인격으로 순전한 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교제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당신의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썼다면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잘 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같이 어리석고 죄에 찌든 다른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못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 궁극적인 구원이 필요 없다고 당당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세상도 “내 탓이오” 운동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젊은이부터 시작해 모두가 물러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흑인용의자를 미국의 백인경찰이 잔인하게 진압하다 수십 분 만에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BLM -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캠페인이 전 미국은 물론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인종차별이 성행하니까 인간은 창조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정도만 다르지 다 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비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천하에 드러난 이 진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찾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롬 3:10-18) 그럼 그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당면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활 앞에 진심으로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 정말로 온전한 신자인가?

이제 이 만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 아니 진짜 속마음을 되돌아 볼 차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하고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마저 함께 식사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형통 출세한 사람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지는 않습니까?

신자도 연약한 인간이며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그 잘못을 토설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십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고멜을 호세아가, 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당신 앞에 엮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절대로 행해선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과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교인이나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나 심지어 자기가 정한 도덕적 종교적 기준을 갖고 함부로 정죄 심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언덕인 하나님마저 그에게서 빼앗아버리는 것이며 마지막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너무나 잔인한 짓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가 싫다는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생각이라도 그래선 안 됩니다. 비유에서 큰 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어서 장남이라 집안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살펴본 대로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본은 윤리나 종교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신자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신자라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어 절망에 빠진 비참한 사람들에게 최후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거나 영적으로 갈급해 갈 바 모르는 이웃들이 마지막으로, 정확히 말해선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고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해줄 것 같다는 자가 평소부터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냥 내 이야기를 어떤 편견, 선입관, 이해타산, 차별의식, 중요하게는 윤리적 정죄 없이 끝까지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철두철미 죄인인데 세상에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허한 소망했던 자가 신자입니다. 자신이 최고로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철저히 죽어봤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까지는 몰라도 차별할 수는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차별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데 신자가 되어서도 차별한다면 최고 낮은 자리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실상 믿음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를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라는 관점으로 대하는지 여부입니다. 창기와 노느라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한 천하의 탕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 자신도 십자가 긍휼 안에 거한다는 증거요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 인간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은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31,32)

타국으로 이민 갔던 둘째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을 탕진한데다 큰 흉년까지 닥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어 목숨만 부지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히 돌아온 것만도 기뻐서 한마디 추궁도 없이 큰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 못마땅해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으나 자기에겐 염소 새끼를 잡는 잔치도 벌여주지 않았는데 창기와 놀아난 동생에겐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장남의 원망을 무마하며 당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려는 핵심 주제가 담겼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먼저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 동안 고생은커녕 전혀 불편함과 부족함 없이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네 동생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네 매일의 삶은 사실상 잔치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동생이 이민 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수시로 먼 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도 옆에서 지켜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은 동생에게 잔치란 가당치도 않고 그 잘못을 엄격하게 꾸짖고 근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동생이 사서 한 고생인데다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기에 그동안 아버지가 동생의 안부를 걱정하며 계속 기도하는 모습도 싫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었고 한 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창 12:1-3)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시내 산에서 그 언약을 계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출 19:5,6)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 앞에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가 종과 횡 어디로 행하든지 함께 하고 그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창 13:14-18) 실제로 하나님은 그는 물론 그 후손에게 그 언약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에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아홉 가지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았고 애굽 땅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굽이 노예로 혹사했고 남자 신생아들을 죽이는 등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 혼자서 대적을 물리쳐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은 이방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이스라엘 진영이 멀리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세 번이나 막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혼자서 다곤 신상을 깨트리고 역병을 내리는 큰 권능을 발휘해서 언약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룰 때에 그의 생각을 주관해서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게 긍휼한 마음을 심어서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게 허용은 했으나 로마의 포용정책에 따라 성전에서 맘껏 제사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꾸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동족까지 정죄 심판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려고 때가 차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그들이 정죄한 자들까지 전혀 꾸짖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진리 됨을 당신의 사역과 이적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탕자이든 종교적 거짓을 따르던 당장에 또 일일이 벌주지 않습니다. 도덕과 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다 영적 시체가 된 인간들 또한 그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에겐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이지 벌부터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불신자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있음에도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돼지 취급도 못 받게 만들어서 기어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럼 항상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신자인 맏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권능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이어서 맏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이 둘 뿐인데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다 형의 몫으로 동생의 두 배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아버지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장남의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아버지의 것만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아들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의 것은 결코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다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신께서 지시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따지면 그가 버린 것과 다시 받은 것이 사실상 같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진 사항이 딱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사탄의 거짓된 농간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풍부해도 참 기쁨은 없고 갈급하고 허망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받은 기업을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 그분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음으로써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육 간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만아들 격인 이스라엘이 그분께 받은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움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롬 3:1,2) 일단 범사에 유익이 많다고 합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생명과 힘의 상징인 곳에 그 언약의 표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힘을 입어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사울의 군대가 꿈쩍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전장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26,47) 할례가 없는 민족의 전쟁은 오직 칼과 창 크기에 달렸으나 여호와와 택한 백성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 다 받은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을 배척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유익을 잘 지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죄인인 이방인은 할례 없는 민족이며 세리는 피만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식사교제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또 하나의 법률로 정했기에 모세 율법을 아주 잘 준행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더 중요한 말씀이 율법 외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백성을 오직 당신만의 크신 공화로 다스린다는 사실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치유와 이적을 베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도래한 줄 알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정식 조사단도 여러 번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소망했던 바와는 달리 로마와 상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창녀 세리 귀신들린 자 이방인 등 상대해선 안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왕의 악행을 꾸짖는 바람에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조차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인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지 물어보게 했습니다.(마 11:3) 본인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 즉 메시아라고 선포하고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성전에서 성실하게 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며 기도와 십일조와 구제에 열심인 자기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믿었는데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저주 받아 마땅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이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고 있으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더러 잘못하고 있다고 꾸중을 하니 분노와 증오가 싹텄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선 당신의 독생자까지 유대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다윗 왕국의 현실적 영광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맏아들의 불평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 너무나 마땅한 잔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맏아들에게 죽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벌여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와는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형의 반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 상황에선 주님이 구태여 그들의 반응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 당국이 금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숙덕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그 후의 사정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자기들을 견책하는 의미인 줄 알아챘을 텐데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도 추측컨대 아버지 말에 수긍은커녕 화가 나서 씩씩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로 마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사람 다 모아 놓고 물어도 초등학교생이라도 정말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만아들에게만은 아버지의 말씀이 전혀 마땅하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땅하다고 번역된 헬라원어는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뜻입니다. 그럼 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만아들이 아이큐가 낮은 것도 아니요 도덕성 종교성 영성에서 뒤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동생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진리, 아니 윤리, 아니 상식조차 혼자서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선 너무나 마땅한 조치인데 집안의 장남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와 심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기는 받아보지 못한 큰 잔치를 벌려준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추하고 악한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장남으로서 관계가 전혀 문제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언약을 지닌 것을 다른 민족들 앞에서 크게 자랑했듯이 아버지와 그 집안의 장남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방탕한 동생과 달리 아주 의젓하게 장남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실행하신 이유는 열방더러 당신을 알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라는

말에도 동일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받은 것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지금껏 이뤄온 가문의 신용과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장남도 그 선한 뜻에 동의하고 평소에 실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십일조와 구제에 열심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랬던 형이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순간 단번에 완전히 비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동생을 착한 자기보다 더 우대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이들은 열심히 구제했으나 세리와 죄인과는 동전 한 푼, 밥 한 끼도 나누기 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을 더 우대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큰 손상이 갔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한 것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현실적 고난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 사회의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든지,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랴 등의 한국 속담들도 현실적 고난은 어쨌든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부모는 물론 하나님조차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인간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비유에서 동생이 돼지치기라도 해서 연명하려 했고 그마저 막히자 돼지사료라도 먹으려 했습니다. 그 전에 이방인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지내는 것부터 도무지 마음에 형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형이 봤을 땐 유대인으로선 절대 행해선 안 되는 일로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아버지의 얼굴과 가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동생으로 다시 맞아주기에는 장남으로서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로마에 빌붙은 세리는 유대인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이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 했고 그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첫째 이유는 자기들 기분을, 특별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인간

지금 비유의 장남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은 이 장남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남은 둘째 아들보다 두 배의 재산을 가졌기에 송아지 한 마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문제되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고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를, 심지어 친동생마저 깔보고 멸시하는데 돈을 이용할 뿐입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까닭도 돈이 자기에게 기쁨 만족 행복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장 소중히 가꾸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아담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뜻도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낙원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일하게 바랐던 것도 당신의 심정을 헤아려서 아버지로서 합당한 대우만 해달라는 것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마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소유권마저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출생과 죽음도 전혀 주도할 수 없는 주제에 도무지 품어선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하늘로 옮기고 천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즉,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창 3:23)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실력이 신적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신일 뿐 아니라 당신이 바로 완전한 선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행한 것은 전혀 아니며 선악을 분별하는 방식만 하나님과 같아진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자기만 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 주는 것이 선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맏아들은 자기만 선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송아지를 아버지가 마음대로 잡았느냐고 트집 잡는 셈으로 자기 기분을 망쳤으니 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고 설명하는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인간 세상에 없는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인격적 살인을 한 것이며 그들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마저 철저히 망가트렸습니다. 자기들 자존심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비록 윤리적 종교적 잘못들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안에선 엄연히 살아 있고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듯이 예수님도 인간세상에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려고 식사교제를 한 것입니다.

현재 세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 칭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 진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진리가 여럿이거나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차원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부인 실종되니까 절대적 선악의 기준이 인간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이고 내 편에 붙어야만 선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 악이고 다른 쪽에 붙으면 무조건 전부 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 맏아들에겐 가장 마땅하지 않은 일이 되었던 말입니다. 작금 전 세계가, 그것도 기독교가 아주 우세한 미국과 한국의 모든 사정이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핵심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또 그러고 싶은 소망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청개구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인정해도 막상 큰 아들의 위치에 서면 그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인간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서 도덕은 물론 상식마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찢러 쪼개어주었기에 비로소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새롭게 거듭났기에 무엇이 진짜로 선한지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실천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마땅하기에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비록 창기와 재산을 탕진했던 동생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나님으로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도 '아직'인가? 그러나 '이제는'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7,10,32)

## 세 비유의 동일한 결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교제를 한다고 비난하자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두 아들에 관한 세 비유로 변증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세 번이나 비유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와 의미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려 합니다.

거의 모든 비유에서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세 비유를 먼저 말한 후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각각의 마지막 결론이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반영해야 할 말씀입니다. 세 결론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사항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늘에서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교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가상하다고 여겨주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전의 잘못과 죄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마음이 완전히 정반대로 새롭게 바뀌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마음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니까 스스로는 결코 행할 수 없고 성령이 간섭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비유에서도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집안 구석에 떨어진 동전에 눈과 발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셋째 비유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 족속에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굶어죽게 되자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라도 되어서 목숨만 건지자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자 돌아온 것이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철저히 반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흥년이 들고 사람대우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고 그전에 유산을 미리 챙겨서 외국으로 이민가게 된 것도 그분의 궁극적이고 선한 뜻에 따른 섭리였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던 맏아들의 영적 실상은 더 비참했습니다. 자기는 동생과 전혀 다른 의인이기에 창기와 놀아난 악인과는 상종조차하기 싫다고 버텼습니다. 큰 흥년에서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잡아줘선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사료도 주지 않은 이유는 너무 큰 흥년이라 자기들부터 먹고 살아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 고난도 없고 넉넉한 아버지 소유가 전부 자기 것임에도 그랬으니 이방인보다 더 나빴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터트리는 것으로 비유가 끝났기에 이 큰 아들만 유일하게 근본 마음이 바뀌는 회심은커녕 스스로 자기 의지로 행하는 도덕적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전적인 희생과 수고가 먼저 있었기에 회심이 가능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밤늦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마도 여인이 집안의 모든 가구를 들어내고 먼지까지 다 쓸어내어서야 찾아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도 유산을 미리 나눠줄 때부터 아버지는 그의 성격 기질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민 생활에 실패하고 큰 고생을 하리라 예상했습니다.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아닙니까? 부모에겐 자식이 밥도 제 때에 못 먹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타국에서 가족 없이 쓸쓸이 혼자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멸시와 차별을 당하므로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큰 흥년이 들자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까지 못 오고 길거리에서 객사라도 하면 다시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선 이 아들이 타국으로 떠날 때부터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심은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과도 항상 함께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리 없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일이 그에게만 가장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삶으로나 말씀으로나 인성과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텐데도 오히려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끝까지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겐 맏아들이 둘째보다 오히려 더 큰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 이제 나타난 새로운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인 죄인과 식사교제를 한다고 비방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라도 어기면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마 15:17-20)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그 본성 자체가 썩을 대로 썩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본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죄가 나온다면 성령이 간섭하여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데'가 있습니다. 영어성경에 But now 로 번역되었듯이 이전과는 정반대로 달라진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반대로 대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므로 그전까지 있던 인간의 의와 비교한 것입니다.

바로 앞 20 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도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맥에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율법을 말하지만 확대 해석하면 인간 사회에서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관습, 제도, 법률, 철학, 사상, 도덕, 윤리, 종교 등을 아무리 충실히 이행해도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에 찌들어 있기에 인간이 고안한 모든 규율들이 불완전하며 상대적인데다 그마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아직도 여성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사회가 많은데 그것을 오히려 아주 의롭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인간다운 의로움에 전혀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이 겪고 있고 탈출하고 싶은 모든 죄악과 고통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간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모두가 자기는 깨끗한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기에 그것들만 막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깨끗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추악해서 그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 새로운 의의 역할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전의 인간의 모든 의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이므로 당연히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 목적 중의 하나도 지금껏 스스로 열심히 시행했던 모든 인간적 구원 노력이 실패였음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 나타난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 거역하자 곧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엄습해서 스스로 이겨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자꾸만 숲 속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평생을 당신의 품 안에서 다시 보호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확증으로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십자가 공훈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전하고 완전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십니다. 인간의 실상은 그 마음부터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당신의 택한 신자를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처럼 바라봐주십니다.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잘못이 아무리 컸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로 대우해주었듯이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사상 철학 윤리 법률 종교 등으로 사람의 점수를 매기는 법은 하나님에겐 아예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착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격했지만 세리와 죄인은 악해서 절대로 그 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의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회적 행동의 표면적 모습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 사회에선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다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사회의 의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당신의 의로 계속 초대했으나 아직도 인간의 의만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봐도 옳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스스로 노력하여 의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면 세리와 이방인과의 식사교제를 금지하는 것만큼 불의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계시를 받는 자(세리와 죄인)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는데도 인간적인 의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일차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유대교의 세부 규정들이 백성들에게 어렵고 무거운 멍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확대해서 적용하면 인간 세상의 모든 도덕률과 종교적 계명으로는 아무래도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오히려 수고와 짐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비유의 마지막 결론처럼 예수님은 공사역 내내 세리와 죄인과의 교제를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인간 세상에선 누리지 못하는, 아니 아예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아담이 하나님의 가족 옷을 평생 입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저의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영적인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며 비난 받을만한 죄라고는 짓지 않았으므로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께 관한 설교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저라는 존재의 진짜 실체도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에게 잘 대해준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고상하기에 내 이름에 먹칠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도 한 끼 나누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갈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의 의로움은 오직 남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치사하고 교묘한 가면이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교만이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도리어 스스로 잘했다고 여겼던 부분에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무나 부패한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섞여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이 제 모든 사고와 행동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철두철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사실이 아주 부끄럽긴 했지만 괴롭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구원 은혜를 깨달은 것 자체가 훨씬 더 기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저의 영적인 실체를 끝까지 몰랐다면 어떠했을까 가정해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요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봉사였다가 개안수술로 곧바로 모든 주변 사물과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내 중심이었던 이전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범사를 분별 판단하여 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높여서 자랑하려고 소유, 권력, 지성, 명예 만 추구하는 삶에서 나는 어떻게 되든 정말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기꺼이 결단하였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천하의 죄인임을 알게 된 것도 기뻐했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했고 또 그럼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지난 세월이 분명히 허랑방탕했었지만 하나님이나 저에겐 하나도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더니 그간의 모든 실패, 절망, 잘못, 허울, 고난, 심지어 죄악까지도 지금 행하고 있는 주님을 위하는 사역에 빠짐없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너무 오묘했고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옆질러진 물 같은 인생을 불순물만 거르고 다시 병에 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질러진 물조차 인간적 의만 추구하던 동안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뻐하여서 미리 다 부어주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의와 다른 완전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변경 포기 된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잘못을 범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는 확신이 구원으로 하나님께 받는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에게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해서 영육 간에 당신의 선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신자도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기뻐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확히 말해 반드시 당신께서 기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므로 죄인 한 사람이라도 당신께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 전부를 다 내주어도 너무나 신나고 기쁘듯이 말입니다.

## 예수 믿고도 전혀 기쁘지 않는 신자들

문제는 그런데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의가 실현되었음을 아직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신이 믿기로 결단하여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자 본인에겐 구원이 전혀 확정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과 인생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하나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잘못들을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으니 다시 한두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또 다시 구원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몽땅 실패했었고 인간에게 무거운 멍에만 있었던 율법적 종교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꼴입니다.

심지어 교리적 가르침 안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상 철학 도덕 종교들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끈질긴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독교적 진리인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영적이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전도하는 것만이 인생에 유일한 가치가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너무나 악한 것이기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께서 택하여서 구원할 자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죽기 직전에 구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구태여 번거롭지도 않고 신자도 곧바로 궁극적인 기쁨에 들어가니까 시쳇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에 모든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신자만이 말을 수 있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현실적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가장 신령하고 경건하며 영적인 인생입니다. 또 그러면 정말로 인간 사회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해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담이 이브를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부 둘 뿐이었으나 그 후로는 모든 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서 서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듯이 세상 누구와도 그래야 하고 특별히 인간 세상에서 인간적인 의로 배척 격리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신자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했던 목자의 역할을 이어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신자가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 세 비유에서 목자, 여인, 아버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실제로 신자가 오랜 기간 수고 희생하며 전도하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 찬송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목사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비유를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지난 잘못들을 회개해야한다는 정도로 알고 그쳐선 예수님의 계시를 수박의 겉도 핏지 않는 꼴입니다. 두 아들 다 탕자였으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로 각기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신자는 두 부류로만 나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조금만 잘못하면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묶이는 초보적인 신자와,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큰 기쁨에 동참하는 성숙된 신자입니다. 아직도 고난만 닦치면 겉으로 믿음이 강한 척 평온을 가장하느냐, 이제는 환난 중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 매일 아침 신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눅 16:1-8)

## 너무 난해한 비유

본문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에 관해 부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 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본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에 대해 16:14-31 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변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7:1-10 까지 바리새인에게 견책한 말씀을 보충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결국 본문부터 17:10 까지는 돌아온 탕자 시리즈의 2 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가르친 내용을 제자들에게 보충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패턴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율법의 외적 형식에 묶인 유대교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주는 기독교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시작하여 13 절에서 끝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아주 난해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은 비난 받아 마땅한 죄인데도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 같으니 혼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흔적이 남아 있어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맨 처음 판단되는 의미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당연히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일을 예수님이 칭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첫째 원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비유 자체는 비교적 정확히 해석하더라도 앞뒤 문맥의 흐름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성경의 장절구분은 훨씬 후대에 생긴 것이므로 성경은 반드시 죽 연결해서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흔히들 16 장은 재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교훈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1-13 절)를 이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경계할 것(14-18 절)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19-31 절)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앞선 15 장의 세 비유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재물 관리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 해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기에 이 비유의 주제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 부재지주와 청지기

앞선 세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유 자체와 그에 대한 교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8 절 전반까지는 비유이고, 8 절 후반에서 13 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먼저 비유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당시에는 자기 재산을 믿을만한 청지기에게 관리를 맡겨 놓고 타지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자기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청지기가 임의로 투자하고 장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지금으로 치면 주인의 인감도장까지 받아있기에 자신이 주인의 명의로 증서나 수표를 발행하고 투자목적으로 돈과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더욱 얻어서 급여가 올라가거나 일부 상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거나 주인에게 불만이 생기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는 꼴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주인도 재테크에 밝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의 이자율이 얼마이며 사업별로 수익률이 얼마쯤이라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돈을 착복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줄기시작하면 주인은 곧바로 조사해보면 됩니다.

청지기가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주인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금방 수군댁니다. 거기다 인간은 참으로 복잡하고 치사하며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돈으로 함께 즐겨놓고도 돈의 위력 때문에 앞에선 굽실거리지만 뒤에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닙니다. 주인은 믿었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다는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2 절)고 통보했습니다. 단순히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그 경위를 해명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즉, 그동안 관리하던 모든 재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빨리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청지기직에서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부정을 모를 줄 알고 자기 돈인 양 신나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숫자에 밝아서 재산관리만 해봤지 다른 기술은 없고 막노동은 더더욱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이전 차용증서는 없애버리고 금액을 훨씬 낮춰서 새 증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의 도장을 맡아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용증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기 한부씩 보관하는 법입니다. 청지기에 완전히 일임했으므로 원본도 청지기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원본을 주인이 갖고 있다 쳐도 자신의 인장이 찍혀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청지기에게 인감을 맡긴 주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적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8 절 a)라고 말하는 것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했으니 주인이나 예수님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혜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 있다는 원어도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등의 의미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갔다면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평생을 아무 일도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굶어죽을 수 없어서 시쳇말로 자기 앞가림을 잘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에게 이익을 보게 해주었기에 그들과 이익금을 나눠먹으면 당장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 궁핍해지면 그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겠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회사의 자금관리 책임자가 월초에 주식이나 코인에 공금을 투자하여 사익을 취한 후에 월말 결산에 감쪽같이 회사에 원금은 입금시켰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사장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참 영리하게 일처리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 행위를 선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를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영악하게 일신상의 안전을 잘 확보했다는 뜻이었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도덕적 판단의 사례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인간사회에 흔히 일어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 예수님 칭찬의 의미는?

잘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기 시작한 8 절 후반부터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8 절 b) 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은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나 빛의 아들은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을 영리하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비유 자체에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주인을 빼고는 청지기와 채무자들 모두가 부정행위에 공모 동참했습니다. 돈의 위세와 매력에 눌려서 도덕적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 세대는 돈이 지배하는 세대이고 그 아들들은 그런 세대에서 출세 형통하려고 자기 인생을 돈으로만 꾸려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을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13 절) 세상은 돈이 다스리므로 돈을 주인으로 삼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을 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돈이 주관한다고 믿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돈을 능숙하게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여서 열심히 모으려는, 더 실감나게 말해서 돈 독이 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서 비유의 의미와 예수님이 내린 결론에 대한 오해는 완전히 풀렸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빛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참된 신자라면 돈이 지배하는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으로 불신자보다 현실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공기업에서 많은 직원들이 담합하여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일확천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자라면 그런 일에 결코 참여할 수 없으니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이래저래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 두 종류의 아들들

이렇게 비유의 의미를 따져가다 보니까 뭔가 앞의 세 비유, 특별히 마지막 두 아들의 비유와 유사하거나 연결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에 상호 대조되는 두 부류의 아들들을 우연히 등장시켰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 격인 불의한 청지기의 상황이 뭔가 두 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재산과 인장을 받아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았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서 재산을 잘 보존 증식시키느냐 아니면 이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서 재산을 횡령하여 날리느냐는 것은 두 아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자 자기가 살려고 궁여지책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계획대로 자기는 살았으나 그 인장은 빼앗기고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가 맡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죽을 지경이 되자 목숨만 부지하겠다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만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긴 아들이 건강히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아들도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청지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만 살려하지 않고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남아 있는 재산에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정으로 뉘우친 모습이 확실하다면 잠시 근신하게 한 후에 다시 청지기로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맏아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것은 전부 자기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얼마든지 동생보다 두 배의 가치 있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는데도 혹시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 염려되어 송아지 한 마리도 아꼈고 환영잔치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도 청지기와 똑같습니다.

맏아들은 이 세상의 제도나 법률로만 아버지의 아들일 뿐 진정한 부자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선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과 인장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니 맏아들은 절대로 반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 외식적 종교규정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비유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셨고 특별히 거룩한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성전제사와 복잡한 율법규정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만 지웠습니다. 종교권력을 맘껏 휘둘러서 자기들 배를 채웠고 백성들도 돈에 눈이 어두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라서 세리와 죄인과는 한 끼 식사도 나누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청지기의 요구대로 증서를 고침으로써 돈을 빌려준 주인을 배반한 채무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더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너희는 지금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나 청지기 비유에서 돈에 묶여서 사는 이 세대의 아들은 절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재물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입이 마르도록 강조해 왔듯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은 교회에서 구태여 다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유도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실체와 인생의 궁극적 목적 의미 가치에 관해서 정확히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만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런 짓을 행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공모한 채무자들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니 돈이 너무 좋아서 죄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 짓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야 말로 영리하다고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에겐 오직 절망과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말고는 어떤 인간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인간에겐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기에 인간으로서 이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청지기 비유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바도 지금부터 너희는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신에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반드시 빛의 아들들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그런 위치 신분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로부터 새 옷과 반지와 신발을 받아서 입을 것입니다.

## 두 주인을 섬기는 신자들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신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심각하고도 솔직하게 적용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이니까 당연한 일을 왜 새삼 문드냐고 의아해 해선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직도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행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형통과 출세에 두는 자들입니다. 신앙양심에 찢리거나 교인이라는 체면에 걸려서 노골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신의 현실적 삶을 개선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물론 현재 당면한 문제나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이 전부이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잘못이나 죄를 주님께 낱알이 싣고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성도나 이웃을 찾아가 섬기지도 않고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길 소명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신자 인생에도 자녀, 직장, 결혼, 재정, 건강, 사업 등은 아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소망과 계획대로 이끌어 달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고 그분은 신자의 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런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 들면 하나님더러 내 대신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보채는 꼴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하나님더러도 돈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너무나 불경한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당장에는 모르니까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길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소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심지어 거꾸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하실지라도 감수할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극렬한 풀무 불에 던져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리라 믿지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교까지는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자신의 모든 현실적 문제는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 가장 스캔들이 심한 기독교

예수님을 비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최고로 충성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대중의 인기가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율법적인 의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자존심만 세우려 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오직 자신들을 사람들 위에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더라도 세상 현실 앞에 자기를 치장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아야겠다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돈에 가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부연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율법적인 종교왕국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주인을 섬겼기에 이제 당신께서 그 나라를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그에 대체해서 세우실 새 나라는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종들도 당연히 그 한 분 주인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백성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더러 비유와는 정반대의 새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새 청지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쨌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지 않고 구제와 십일조와 기도와 금식 등을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끄럽지만 엄연한 사실로서 지금은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 안에 불의한 청지기들이 가장 많다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부정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사역이나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양상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들면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도덕과 종교에 빗대어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성도들을 이를 비방 정죄하게 됩니다.

엄격히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또 아버지에게 탕자인 아들이, 나아가 불의한 청지기가 따로 없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수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너무 세어서 혹은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이전에 부어주었던 축복을 회상합니다.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고 재확인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묵상하면 자칫 하나님더러 다시 돈 벌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후로도 힘들 때마다 잠시 또 돈을 주인으로 삼는 잘못에 빠집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기는 길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주인이 한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그분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가 처절한 실패요 사망이었음을 온몸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탕자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돈은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더라는 확고한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와 권능을 가지는지 정말로 실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간혹 아버지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진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돼지 취급도 못 받았던 이전의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 중에는 지난 축복을 헤아리기보다 그 반대로 돈으로 인해 처절하게 실패했던 일을 떠올려야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한 가치와 의미 있게 이끌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신자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신자답게 살 것인지가 아닙니다. 진짜로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말하는 바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는 신자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친구들 덕분에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눅 16:8,9)

## 더 난해한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정작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마무리해서 해설해주는 교훈에 드러납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 같은 역할만 합니다. 비유 자체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결론에 부응하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8 절 후반부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가장 먼저 사람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세형통만을 목적으로 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일신을 위한 돈 관리를 영리하게 잘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빛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결론 내렸다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단순히 자기 앞날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고 인정해준 것뿐입니다. “웁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했기에 주인이 청지기의 사람됨을 칭찬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행했기에” 칭찬한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이어지는 9 절의 내용이 그 사실을 더 확실히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하기 더 어려워 보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주할 처소라면 천국이고 그럼 불의한 재물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준비하라는 뜻이 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인해 청지기 비유의 주제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앞선 세 비유처럼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 비유에선 목자, 여인, 아버지가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아내어서 구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제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두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실 리는 결코 없습니다.

##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의 원어는 맘몬 신, 보화, 재물이라는 뜻으로 중요한 영어성경들도 돈(money)이나 물질(material)이 아니라 ‘mamm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헬라어 마모니스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네 번만(마 6:24, 눅 16:9,11,13) 등장하는데 특이하게도 전부 다 예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맘몬 둘 중에 한 주인만 모셔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맘몬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과 견줄만한 신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맘몬을 사람을 조종 통치하는 능력에서 당신과 동격이라고 인정해준 셈입니다.

돈이나 재산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계시하려는 첫째 진리가 돈에 대한 태도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진다는 것이었습니다.(8 절 b) 이제 9 절은 그 진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재물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모습이 마치 맘몬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unjust 라고 표현되었듯이 법적 도덕적 불의, 불법, 사악함, 불공평 등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몽땅 맡길 테니까 자기 대신에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면 의로운 재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정반대로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낭비했을 뿐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칠 자기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착복했기에 불의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재물 자체는 가치중립적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혹은 불의하다는 평가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방식으로 벌고 쓰면 의로운 재물이며 그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웁지 않은 청지기는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려 했습니다. 그가 주인 몰래 부채를 크게 감면해주는 부정을 저지른 이유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4 절)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큰 신세를 졌기에 자기가 궁핍해지면 어떻게든 그들이 도와주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비유는 결론에 드러난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역할만 한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에선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4 절)고 표현했는데 비유를 해설한 9 절에선 “저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같은데 처소에 ‘영주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만 다릅니다.

그럼 비유의 청지기는 이 땅의 친구 집으로 영접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처소로는 영접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만 살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의롭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데 여전히 선행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는 성경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입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자면 몇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0:25)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면 된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대답이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즉, 행위 구원이 옳다고 전제한 후에 그 방법만 알고 싶다고 질문했기에 그 의도에 맞추어서 대답해준 것뿐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즉,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29 절) 그로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사랑도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인의 비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길가다 강도당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외면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자기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자기 돈을 써가며 여관에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해서 살렸습니다.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셋 중에 누가 그 다친 사람의 이웃인지 대답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초등학교도 풀 수 있는 도덕 시험으로 정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사도 정답을 말했는데 그 대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마리아 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답했습니다.(36 절)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이런 문답에 너무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동족만, 그것도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잘 따르는 자들만 이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들끼리는 정말로 사랑을 잘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는 아예 식사교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율법 교사처럼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자기들의 이웃 즉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북왕국이 앗시리아에게 점령당한 후에 그들과 혼혈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도 민족 반역자로 정죄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율법교사는 평소에 이웃이라고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인을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 인정해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순히 자비를 베푸 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사임에도 그 썩어빠진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그것도 그의 심령 깊숙이 꿰뚫어보시는 독생자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로선 남들보다 의로운 자기가 이웃의 자격과 조건을 정했으니 그 이웃의 범위가 틀렸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서 반문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을 베푸는 자라도 이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장에 궁핍하고 환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자라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질문을 한 율법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너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자격도 없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에 구태여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로 나눠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도덕과 종교적 잣대라 해도 절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 구분 차별해선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부 하나님을 잘 알고 뜨겁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사용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도 열심이었는데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 임의로 선택하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을 대신할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성전에 바쳐진 십일조로 섬겨서 살려내는 것이 그들이 맡은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당신을 잘 아는 자들인지라 당신 대신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양들을 외면 배척 멀리 천대했습니다. 정작 사랑이 절실한 자들과는 식사도 나누지 않아서 세상에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선 이 땅에서도 온전한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들었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근이 닥쳤을 때에 평소에 자기 돈으로 덕을 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려 했으나 모두가 자기 살기 바빠서 아예 돼지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둘째 아들의 경우에 설명했기에 생략되었지만 결국에는 친구들에게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에 따르면 불법에 동참한 자들도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만 높이려 들기에 자기 돈을 자기 외에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많기에 상대 지역에 여행은 더더욱 하지 않기에 강도당한 자는 유대인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 유대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깁니다. 강도당한 자가 일반 유대인이라면 평소에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평소에 담임목사를 잘 섬기던 교인이 아파서 다 죽어 가는데도 목사가 심방 한 번 가지 않은 셈입니다. 만약 강도당한 자가 그들과 같은 신분이었다면 평소에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역자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탕자 비유의 이방족속과 똑같이 강도당한 자를 돌보기에는 자기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 선행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만 이웃 삼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 취급도 않고 밥도 한 끼 나눠먹지 않는 세리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사랑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선포했습니다. 반어법 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 즉,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무리 하면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사마리아인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기에 영생을 이미 얻은 것처럼 자신을 뽐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웃 사랑을 했기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상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이 땅의 처소에만 영접하는 것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 것 둘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인이 구원 받은 이유가 도덕적 종교적인 의로 선행을 베푼 때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을 여행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용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도당한 자가 유대인이라면 자기 원수나 다름없기에 자기 죄 값을 받았다고 고소하라고 여기고 방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급한 용무를 잠시 제쳐두고 자기 시간과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베풀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도 그 민족 계급 신분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사는 상대가 되돌려주는 사랑을 보고 친구를 사귀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사람 자체가 빛의 아들이었기에 의로운 일이 몸에서 우러나왔고 재물도 의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평소에 비유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생각과 자세로 살고 있다면 친구들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마련이라는 것이며 또 그런 자는 당연히 천국으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롭게 사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돈 대신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천국으로 영접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도 탕자인 둘째 아들이 파산한 것이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한 때가 아닙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인 마지막 날입니다. 어리석고 죄에 찌든 인간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뿐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신 8:18) 신자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신자는 그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도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는 고난에 빠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서 친구로 만들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러려고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자를 사귀는 데만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사처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천국으로 보내어 주는가?**

항상 그러하듯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 한 치의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처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물론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비나 백신이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하면 어서 빨리 맞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흑인과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백인우월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고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한다면 그 믿음 즉, 구원여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침 애틀랜타의 총기난사 범인은 교인이었는데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뒤늦게 그를 파문했습니다. 물론 마땅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를 파문했다고 그 교회와 교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면제될까요? 그 또한 백인우월주의자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교회에서조차 끼리끼리 모였기에 평소에 그가 차별대우 받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따돌림이 계속 쌓이는 바람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평소에 싫어하던 아시아인에게 폭발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만은 세상에서 차별 박대 외면 받은 모든 자들이 마지막으로, 정확히 말해서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되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도 마지막으로, 사실은 아무도 자기들과 교제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신분과 위치가 다른 사람으로 자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지난 모든 상처와 놀림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행사의 대표적인 것은 년 초에 구역을 재편성할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과 당회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데다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놓았느냐고 반발합니다. 자기들과 잘 통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로만 묶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를 선택할 때부터 외적 여건과 신자들의 분위기부터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재물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높이려 들기에 결국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만 사귀겠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가 재물보다 정말로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물로 인한 철저한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비참해진 자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귀한 하늘의 보물로 더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범사를, 그런 실패까지도 거룩하게 통치하시기에 그분을 떠나선 항상 더 처절한 실패뿐이라는 진리가 몸에 완전히 배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진짜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어야만 재물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착각했고 자기가 잘 관리해서 더 풍부하게 늘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허랑방탕한 실패였고 큰 기근이 닥치자 그동안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에게 배신만 당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다시 더 풍성히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재물로 인한 큰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은 절대로 자기와 자기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쫓으려다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흥미롭게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제 발로 출석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현실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재물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려고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감사해집니다. 이전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힘 들긴 했어도 예수님을 몰랐던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불쌍했다고 뒤늦게나마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다시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 들거나 재물로 친구로 사귀려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사처럼 이웃사랑을 잘못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법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재물보다 친구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시간과 재물을 소비해서라도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자입니다. 신자란 재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 안에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돈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상의하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최소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으로써 주인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친구들 덕분에 영주할 처소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살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10-13)

## 비유를 비유로 푸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9 절)고 가르쳤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비유의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의 일시적 장래만 도모하지 말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제자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충성하는 것과 불의 하는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하게 여기는 것과 경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로 대비했습니다. 주님이 청지기 비유로 가르치고 싶은 주제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처소와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 절은 일종의 잠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흉내 내어서 이 경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인 양 아끼는 직원은 복사지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꼭 필요할 때만 복사하기에 복사기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 물건은 돈 많은 사장의 것이니까 내가 알바 아니라는 직원은 용지를 전혀 아끼지 않고 비싼 복사기도 함부로 다룹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사지나 복사기를 아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평소에 회사의 것을 자기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긴 것과 돈 많은 사장의 것이니까 낭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즉, 근본생각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고 그것에 불의한 것은 비유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임에도 자기 안전만 도모하려고 재물을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큰 것인 영원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11 절 b)고 했는데 여기서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자에겐 참 된 것 즉, 영원한 구원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소원한대로 실직 후에 이 땅에서 거할 처소는 확보했을지 몰라도 결코 영주할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남의 재물도 자기 것인 양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 주인과 종의 비유

이는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에 관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잘 관리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눈 기준이 돈과 하나님 중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종 결론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하는 자입니다. 한 주인을 모시면서 다른 주인의 명령도 함께 따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 쪽을 더 중요시해도 안 됩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돈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 어법에는 어떤 개념을 강조할 때는 정반대되는 개념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도(롬 9:13)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에서 즉, 이방인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자기 주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려고 다른 주인인 돈을 미워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돈이 사악한 것이니까 아예 담을 쌓고 지내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은 이 땅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신자도 열심히 자기 직업을 통해서 벌어야 합니다. 주님도 지금 돈을 사용해 친구를 사귀라고 그것도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긴다고 해서 한 쪽을 70% 사랑하고 다른 쪽을 30%만 사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둘로 나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수사법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후에 영주할 처소에 70%만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그렇지 못한 처소에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 땅에서부터도 주인에게 100% 순종해야 합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보충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죽은 후에 거지와 부자 두 사람이 거쳐하는 처소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게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던지 물을 짊어서 목이라도 서늘하게 추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눅 16:26)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이고 죽은 후에는 누구에게나 이처럼 완전히 둘로 나뉘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히 9:27)

## 청지기 비유의 최종 결론

이제 주님이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바는 확실하고 명료해졌습니다. 인간은 딱 두 부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中间的 회색분자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돈만 주인으로 모시고 돈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각 자의 사후의 영원한 운명도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에게 이 땅의 일시적인 처소를 예비해주는 주인은 돈이고 영계의 영주할 처소를 예비해주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12 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남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해야 의미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것이면 이미 소유주가 너희인데 다른 사람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대체 주님은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비유에서 청지기는 불의한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 직분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의롭게 관리했더라면 자기 직분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의 노예가 됨으로써 자신이 찾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찾아 먹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자기 것도 못 챙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소망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선 돈이 전혀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돈이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락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는 어떻게든 돈만 많이 모으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돈이 주는 이 땅의 것밖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이 결론에 대해서 자칫 오해해선 안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라고 오직 하늘의 영생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자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손해 희생 수고를 당해야 하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최저 빈곤선에서 살면서 항상 천국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 여정은 현실과는 무관하게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고난의 행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도 재물처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믿음은 이 땅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문화와 문명을 신자도 공유하며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다 마련하신 후에 인간만 직접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이 땅에서 살게 된 것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고 무엇보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여 모든 과일과 채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종류별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각각을 정성껏 경작하고서 그 수확을 맘껏 즐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향해 갖는 첫째 소망입니다. 신앙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사탄은 씨도 없이 다 말려서 죽여야만 하는 투쟁의 연속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일 말씀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십자가 대속 제물로 바쳐져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찌든 상태에선 아무래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까닭도 그 이후의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이전 삼년 간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실제로 살아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께서 베푸신 첫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일차적으로는 그 잔치의 기쁨을 깨어지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세 율법으로 지켜야 할 결례용 물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지금 청지기 비유를 가르치는 이유도 당신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 교제를 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나 신자들의 모임에 앞서서 포도주와 성찬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교제한 셈이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냐”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삼는 것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그 주인들이 주는 행복도 둘로 나뉘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할 너희의 것이 됩니다.

## 깨어진 하나님의 소망

그런 하나님의 소망은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써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이 산출하는 다른 모든 재물을 네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당신께서 다 마련해 주셨으니 너희는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아담에게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데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고 오히려 미워한다고 여겼습니다.

아담은 곧바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 들었습니다. 아담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당신처럼 되는 것이 싫었다면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둘 리는 없습니다. 그곳에 두었어도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는 정녕 죽는다고 경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인류에겐 큰 불행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온전한 진리였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책감에 휩싸여 두려워졌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니까 이전에 누렸던 행복했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엄격한 경고대로 실질적인 죽음이 엄습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동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고 해도 절대 자기를 간섭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던 이 땅에 영경귀와 가시덤불로 무성해졌습니다. 자기만 최고로 높여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는 죄인들의 싸움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의 동산의 재화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수단에 그쳤으나 인생의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돈 자체가 인생이고 돈이 인간을 종으로 부려먹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돈이 자신의 안전과 기쁨과 행복이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짧고 한 번 뿐인 인생을 어느 누구의 통제 조종 간섭 없이 자기 뜻대로 펼쳐보려면 최대한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유란 자기에게 미치는 어떤 통제력이나 영향력도 제거 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시작과 끝인 자신의 출생과 죽음도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중간과정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적 철학과 사상의 성지인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행 17:26,27) 연대는 출생과 죽음이고 거주는 민족과 국가인데 인간이 절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하나님을 찾아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성된 첫째문제는 인간이 이 간단한 진리도 외면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유의 본질을 전혀 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완악한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은 오히려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주려는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순종만하면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당신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라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바깥 말해 재물만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시면서도 그것을 찾아 누리는 방식마저 인간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참 자유에 참여할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순간 곧바로 그 참 자유가 상실된다는 것이 정녕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이 땅의 안전만 도모하는 자는 너희의 것조차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인간의 주인 되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돈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돈을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기만 할 뿐입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이 땅에서 거주할 처소를 풍요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실직하게 될 위치에 있는 자에게 네 권한 한도 내에서 주인의 돈이라도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 네 앞가림부터 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돈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를 제 멋대로 행하고 싶은 탐욕이 앞서는 인간에겐 그 지극히 작은 재물마저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것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나 치사하고 추악한 꼴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을, 나아가 자기라는 존재를 정말로 귀하게 아끼는 자라면 절대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생한 교훈인 셈입니다.

##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서 신자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며 신자도 이 땅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궁핍하니까 하나님이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자족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 때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던 풍부하던 기쁨과 감사를 잃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즉,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능력을 받아서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지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으니 문맥상으로는 궁핍이든 풍부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장애도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 절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더러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괴로움에 참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로선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기에 온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비방 멸시 핍박에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졌으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자기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유라곤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경배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평소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자 굴에 던져졌어도 굶주린 사자 떼들이 입도 병긋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사자 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유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껏 사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나 바울이 자신들의 삶과 일생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달팠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또 자유롭지 않다고 불평했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기준을 현실적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또 시키는 것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키지 않거나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을 70%만 하고 돈이 시키는 일을 30%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 그 성취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신앙여정입니다.

청지기 비유가 말하는 바는 참 자유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자유로워진다는 진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목사와 교인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눅 16:14-18)

##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규정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들을 되찾는 비유를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곁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해설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다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을 보충해서 설명해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선 뜬금없이 앞의 설명과는 관계없는 간음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거기다 몇 절 안 되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성경공부 하듯이 한절씩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비웃은 이유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14 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은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일시적 형통과 안락만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영주하는 처소로 영접되는 사람 둘로만 나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율법에도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영주할 처소에 영접될 자신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겨도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은 결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비주류 랍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정통파인 자기들을 나무라고 있다고 여기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일상사에서 율법에 따른 판결도 내려주는 수고를 했기에 당연히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 돈을 좋아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님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막 12:40)

요즘으로 치면 그들은 변영신학을 가르친 셈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반드시 현실적으로도 넘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당신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은 부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동일한 신앙노선을 가르치며 신자들의 헌금으로 큰 부자가 된 두 목사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믿고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미국 최대교회의 담임목사와 주로 집회나 TV 에서 성령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면 질병이나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답지 않게 호화 주택 여러 채와 요트 등을 소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면 자기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뜨겁게 추종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원래부터 부자였거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교인들이 기꺼이 응분의 대우를 해주어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신자의 믿음과, 사실은 인간적인 정성과 열성임에도, 비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 축복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어쨌든 겉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물론 유대사회의 전통 관습 법규를 준수했으며 기도와 십일조와 구제도 잘 했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선 자기들의 의로움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장어귀에서서 큰소리로 기도했으며, 채소와 양념까지 십일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쉐마'(신 6:5) 경문을 담은 작은 상자를 이마에 매는 끈을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라는 표시로 겉옷의 깃에 다는 청색 술(민 15:38)을 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마 23:5) 주님은 그래서 지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15 절)

히브리어로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기원전 2 세기부터 헬라 세속문화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유대교가 오염되지 않게 지키려는 종교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민족반역자 세리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식사교제를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이왕이면 하나님도 잘 믿고 복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것은 영적인 거룩인 반면에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현실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반대가 되면 그 둘이 중간에서 만나는 접점은 없습니다. 신자인데도 성경은 뒷전이고 성공비결, 세상처세술, 자기개발서 등을 더 열심히 찾아 읽는 까닭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13 절) 끼리끼리 모인다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자기들과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갔기에 그분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15 절) 바리새인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15 절 b)

솔직히 말해 작금 일부 한국교회에서 공공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장로 같은 중직자를 세울 때에 기도 십일조 봉사 잘하는 자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세웁니다. 교인들도 자기들의 수고가 줄어들 테니까 그런 자들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심지어 장로로 선임 되면 얼마 이상 헌금하라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러는 교회가 소수라 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을 더럽힐 수 있듯이 기독교 아니 하나님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꼴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부터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시도하다 사도들로부터 크게 혼이 났습니다.(행 8:9-24) 그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 대제사장에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권을 차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으니 참으로 갑갑할 따름입니다.

### 잘 믿으면 형통하는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 중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중병이 걸리면 교회활동에 등한히 하더니 하나님에게 벌 받았다고 뒤에서 수군댁니다. 잘 믿으면 그것도 교회와 담임목사에 충성하면 반드시 현실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행태와 똑같은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면까지 닮았습니다.

만약 잘 믿으면 현실적으로도 형통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리가 없고 가셔도 안 됩니다.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번창 영화롭게 바꿔주어야 합니다. 욥기 1-2 장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서 세상에서 최고로 궁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영혼과 육신이 거룩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만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심어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 많이 최고 빨리 최고 편하게 차지하려 들어서 세상에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판단미스나 시행착오는 물론 게으름 등이 실패와 고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신자를 포함해서 인간들 스스로의 죄와 잘못 때문에 평생토록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도덕적 행동과 종교적 경건에 대해 단지 점수만 매기는 판정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신자가 죄를 범해도 다시 거룩하게 고쳐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자의 믿음 또한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복신앙관을 고쳐주려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16 절) 율법은 모세오경이며 선지자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가르치는 관용어인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한 셈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을 꾸짖다가 참수형을 당한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구속력이 요한의 때로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17 절에서 율법의 한 획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언어 플레이로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다고 즉, 영주할 처소로 영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16 절)

요한은 인간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바쳐질 메시아라고 유대대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 구원이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맥상의 흐름에 따라 바꾸면 바리새인들의 기복적인 가르침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다 아시기에 더 이상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거룩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도덕과 종교의 형식으로 추종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기들의 육신만 살찌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지옥으로 멸망하는 참상을 하늘에서 도저히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양떼들을 등치는 삿군 목자 시대를 끝내려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목에 씌운 도덕과 종교의 굴레를 십자가로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가 도덕적 죄인이고 이방인이 혈통적 죄인이라고 해서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인 것입니다.

##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정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신(17 절) 후에 간음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연설명이 없이 곧바로 간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18 절) 조금 황당해 보이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시 상황에서 당시 청중에게 전하려고 했던 의미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중은 바리새인인데 백성들로 율법을 잘 준행케 하여 유대교를 수호하려는 열성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여한 거룩한 율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들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리와 죄인과는 식사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과 똑같이 사랑하라(레 19:33,34)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마음으로 로마를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미워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 행해야만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일을 맡은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거리낌 없이 교제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 협조 잘한 것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야말로 으뜸입니다. 거기다 세리처럼 로마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동족의 돈으로 부자가 된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지혜롭게 다루어 너무 쉽게 부자가 되니까 그들을 극도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는 당신이 그들과 교제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세리들을 두둔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절묘한 언어 플레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로마에 바칠 돈을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적게 내고 자기가 착복하는 세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적당히 둘러대긴 마찬가지이지만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리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세리에게 관리하도록 한 돈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또 로마제국의 풍요한 부요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맨 앞으로 나온 세리는 양심적이거나 최소한 자기 잘못을 진성으로 회개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큰 것 즉, 영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돈을 좋아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지극히 적은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큰 것을 결코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정을 저지를 때마다 율법의 정신은 물론 명문 규정마저 어기고 도리어 자기들이 만든 거짓 규칙으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런 또 다른 예로서 예수님은 간음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18 절)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신 24: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내의 수치 되는 일은 혼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 못할 결정적인 하자를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도 이혼조건을 부정과 율법파기에 한정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학파는 남편이 이혼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일반 백성들도 이 해석을 쫓아서 요리만 못해도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고 유권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이유로 쫓겨난 아내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에 따르면 여전히 그 남편의 아내이고, 남편도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남편은 어쨌든 아내가 있는데 그랬으니 새로 시집 온 여자와 함께 간음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당한 여자도 아직 남편이 있기에 그런 여자에게 장가 드는 남자도 그녀와 함께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인장을 가졌다는 권세를 악용해서 채무자의 차용금액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의 인기를 사서 그들로 친구 삼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여 유대 남성들에게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었습니다. 자연히 자기들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고 그 대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나 바리새인이나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자기 거처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돈이 아니라 주인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과 식사교제 금지를 당한 세리와 죄인들의 가슴에는 정상 인간 축에도 들 수 없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심어주었습니다.

거기다 자유롭게 이혼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자기들 추종자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엄청난 죄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우쳐주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도리어 비웃고 있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웠던 바리새인들의 영적 수준이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 인간의 영적 실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 값을 지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천년 전 골고다의 예수님의 처형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일반종교처럼 인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인간이 자기 의지로 십자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

제가 인터넷 사역을 한지 큰 이십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성경과 신앙에 대한 상담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본문과 맥락이 같은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경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거나 원래 의미하는 바와 달리 확대해석해서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조금만 윤리적 종교적으로 잘못하면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는지 두려워했습니다.

신자들은 목사에게서 배운 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성경해석과 적용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선합니다. 신자들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거룩하게 자라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 종교적인 뜻보다 그 배후에 있는 그분의 심정을 정확히 헤아려서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도덕과 종교 규정으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며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디다.

예수님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제 곧 십자가 복음의 때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한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그대로 실천하되 문자적으로는 해석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정신은 당신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골고다 십자가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뜻은 누차 강조하는 대로 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미워하되 죄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여전히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스스로 옳다하는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율법규정대로 사람들을 정죄 심판하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도무지 자기 죄를 씻을 길이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용서하여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주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회개 각성하게 해서 날로 거룩해지도록 당신께서 보호 인도해주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이 베풀어지기 전에는 모든 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위치에 서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사형수이고 신자는 그 형을 사면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끼리 특별히 신자가 불신자들이나 동료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꼴입니다. 자기는 더 나은 사형수이니까 더 나쁜 사형수는 비방 멸시해도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니까, 그것도 자기가 정한 잣대에 따라 판단해놓고 예수님과와는 정반대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겠다고 덤빉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심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더 애처롭게 여깁니다.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도록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줍니다. 예수님이 탕자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가르칠 제자들더러 바로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아들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육신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진심으로 낮게 여기고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남의 눈의 티끌보다 자기 눈의 들보부터 먼저 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월하다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한 바리새인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가 본문에서 배울 바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특별히 목사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필연적으로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컨대 가장 말썽 많은 동성애자도 사랑할 수, 최소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 죽기 전에 인생 역전을 이루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눅 16:19-25)

## 부자는 지옥 가는가?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악용하여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치부한다고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한 목적과 정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외식적인 경건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이혼증서규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서 호사를 누렸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반면에 세상에서 고생만 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부자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던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해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미리 경고해주고 싶다는 요청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사후심판에 대해 예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기에 종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유가 길고 내용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 우선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야단쳤다고 해서 비유의 뜻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거나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에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창세기의 네 족장은 물론 베드로도 당시로 봐선 부자 축에 속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가족의 묘에 묻은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장소에서 15 장과 16 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잡으면 17:10 절까지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번갈아가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돈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두 부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구절들도 그 주제와 일치 내지 연결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해서 주인으로 삼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낙원이 아닌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일관된 흐름에 따르면 비유에서 부자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고 거지는 그들에게 멸시 받았던 세리와 죄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과 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되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상한 비유의 내용

그런데 비유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세리들도 부자인데 큰 병을 앓는 거지로 비유했습니다.

부자가 호화로운 옷을 입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옷깃에 푸른 술을 길게 늘어뜨린 것에 빗댄 것입니다. 날마다 연락한다고 했으니 일상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19 절) 말하자면 항상 그렇게 차려 입은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푸짐하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했지만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말합니다.(22 절)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배불리 먹었으면 죽었을 리 없고 또 힘을 얻어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은 전염병을 염려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체면과 자존심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라도 주어먹겠다고 대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이 돼지 사료라도 먹겠다고 덤빈 것과 같은 처지라는 뜻입니다.



개가 헌데를 핥았다는 것은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개에게조차 모욕을 받았다는 것과,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개만 관심을 가지고 헌데를 핥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 원어가 '퀴온'으로 길거리에 떠도는 사나운 야생 개를 뜻하므로 아무래도 개마저 거지를 천대했다는 뜻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란 '던져지다'라는 수동태로 부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던진 것을 뜻하는데 야생 개들이 그것을 받아먹은 것입니다. 부자는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남은 것을 개에게는 던져주어도 거지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사람인데도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방인이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에게는 주어도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몇 번 강조한대로 큰 기근 때문에 자기 소유인 돼지를 죽일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놀면서 자기 가축도 아닌 야생 개들에겐 음식을 던져주어도 거지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상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셈입니다.

## 전도되는 영원한 운명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름을 붙인 경우는 이 비유가 유일하므로 그 이름의 의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 장의 죽음에서 소생한 예수님 친구이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이 격심해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브라함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다"(25 절)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역본에 부자의 좋은 것 앞에 소유격 대명사가 붙어 있으나 나사로의 고난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안락을 누렸으나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사회의 구조적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거지를 개마저 관심을 두지 않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날마다”라는 말이 뜻하듯이 부자는 일생동안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일생이 그랬다는 것은 아예 인생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유로 자기 안락을 누렸고 자기 소유로 행한 것이라고는 자기를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형통과 출세만을 위해 소유를 늘렸고 소유 자체가 목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바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선 완전히 소망이 끊겼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소망이 생기는 세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밥도 한 끼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때문에 누었다고 합니다. 큰 중병을 안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비방 핍박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철조망은 견고하기 짝이 없었고 아무도 세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구원의 산성인 하나님에게마저 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도 성전 문 앞에서 제지되었고 그 안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될 예배를 상상만해야 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간 취급해주며 함께 식사해주었습니다.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고자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자 즉,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낙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운명이 갈리게 된 이유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들과 격이 맞는 사람들을 따로 정해서 자기들끼리만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자들이고 거지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멀리 소외 격리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비유의 부자는 영적인 충만 마저 자신의 소유를 늘림으로써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높임을 받았기에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고 믿고 살았으나 죽은 이후에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지같은 인간적인 의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선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최고로 의롭다고 자부했으나 치명적인 착각이었고 결국 영원한 운명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영적으로 아무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겸비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선 영적으로 파산되어 거지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죽은 후에는 영적으로 가장 풍요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절망을 하나님이 낙원에서 희락의 찬양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방식대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선 전혀 불가능하기에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인생역전을 이루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람들 규정에 따라 정죄당하며 살았던 죄인이 하늘에선 영원한 의인이 되었고,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잠시 의인이라고 땡땡거렸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 지옥 심판은 있다.

비유이지만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째가는 뜻은 사람이 죽으면 구원과 심판 반드시 둘로 나뉘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존재가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의 상황이 완전히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도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선 이 땅에서의 선행과 공적에 대해 개인별로 점수를 따로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만 당신이 품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주시기에 죽은 후에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의 심판을 하실 리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옳으려면 이 비유부터 부인해야 하고 그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뜻이며 나아가 스스로 성경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지옥 심판을 하지 않는 사랑뿐인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징계나 연단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만하고 죽은 후에도 아무 심판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딱 하나 더 줘서 공부 못하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만 바라면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을 거역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자이므로 것으로 그분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려 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부인하는 지옥에 떨어질 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새 규정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으며 스스로 당신을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대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옥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크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첫째 진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형통 출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용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최고로 현명합니다.

## 자유자와 노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낙원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비유란 청중이 익히 알고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인용하기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가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객사했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고 악인은 악귀들이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22 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취급도 해주지 않던 세리도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유대인 취급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이름을 따서 거지를 나사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은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히브리 혈통만 가지면 이미 구원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했는데 하늘 법정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의 절대적 진리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은 몰라도 영적 신분도 아브라함 이후로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이 항상

자유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밥도 한 끼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노예가 되어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과 출세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이방 제국 로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덕과 종교의 잣대만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바람에 모든 이를 이웃 삼아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 최고의 자유와 완전히 담을 쌓고는 자기들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역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죽은 후에는 괴로움을,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은 거지는 죽은 후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25 절) 인간사회에서 인간이 정한 규정에 묶여서 노예로 살았던 세리와 죄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자유자였고 반대로 도덕과 종교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 바리새인들은 인간사회에서부터 사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무덤에서 썩으나 모든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며 음부라는 한 장소에 들어가 무한정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자 말자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낙원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음부로 나누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인식이 가능해서 아브라함과 교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이니까 곧바로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선 불가능했던 순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설명한 음부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간으로 제한되어 사는 인간은 영계의 일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낙원은 지극한 기쁨이요 음부는 지극한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이더러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정말로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 신자의 신분

이 비유에 우리 세대가 귀기우려 들어야하는 예수님의 엄숙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정장을 화려하게 빼입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맞추어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는 화려한 예배 당 안에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하십니까?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정해서 날마다 끼리끼리 만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교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를 씻어주시고 아들이 입을 예복을 입히고 아버지의 인장을 끼워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일 년이나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동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불신자 독거노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부정이나 스캔들이 없고 목사님은 성경대로 말씀을 잘 전하기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로선 최고 좋은 교회라고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만 출석하고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교인들 분위기가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철저히 부정하기에 부자들을 별로 없고 중산층들이 많이 출석했습니다. 신자들도 그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도 아무래도 교회가 강남 8 학군에 위치하다보니 자기는 외톨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열등감 내지 자격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그분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무게에 눌려 바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책임과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명색이 신자이면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상처 내지

열등감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만큼 남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막상 그런 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기 쉽게 바꾸면 인간이 정한 규정과 관습인 도덕과 종교로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돼지우리에, 나사로 거지가 개 취급도 받지 못한 그 부자의 대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울고 슬퍼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장소에만 가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를 만나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현실에서 돈이 없어서 괴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조적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변방에 밀려난 자들입니다. 너무나 힘든 지금 이 세대에는 그런 자들의 아우성이 천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 찾아다니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몸이 가시는 곳에 신자의 마음과 몸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자로 부름 받은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발 세상과 돈에서 위로를 찾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 안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돈이 필수적이며 신자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작 문제 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높이려들면 자연히 돈만 목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참 자유가 돈에 속박되고 그 묶인 채로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천국에서 역전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땡땡거리는 불신자들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져선 안 됩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할 지옥으로 떨어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대로 말해 신자라면 이 땅에서의 핍박 멸시 고난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더 커지니까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며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죽음 이후 역전될 인생만 소망해선 안 됩니다. 불신들도 그런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신자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9,10)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역전된 인생 즉, 돈의 묶임에서 풀린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미리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자는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 신자인지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눅 16:26-31)

## 건너지 못하는 큰 구렁텅이

복음서를 보면 사후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게 될 것이라는 정도로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꾸짖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했기에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 천대 받던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낙원으로 갔고 이 땅에서 호사스럽게 살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타는 극심한 괴로움 때문에 낙원의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 마시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낙원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25 절)고 밝혔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가 거지와 운명이 뒤바뀐 것이 살펴본 대로 단순히 이 땅에서 호사스럽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 천대했던 것입니다.

부자인 바리새인들은 살아 있을 때에 거지 세리와는 한 끼 밥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은 그들이 매일 연회를 벌리며 먹고 마신 음식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살았을 때 범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지금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원망할 수 없다는 즉,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건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유의 특성은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하되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의 의미도 간단하게 추정이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인간의 죽은 후의 상태는 정반대의 극과 극으로 나뉘진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생수가 넘치고 음부는 불꽃만 넘치는 곳입니다.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며칠 만에 죽지만 욕신이 물질계에서 제한될 때만 그렇습니다. 영계에선 그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엄청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독이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선언했습니다.(렘 2:13) 부자는 자기 소유로 자기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탐욕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항상 목말랐던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세계의 구체적인 물리적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낙원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함으로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반면에 음부는 그런 교제가 불가능하므로 기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죽은 후에는 제 2의 기회는 없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다는 둘째 의미는 죽은 후에는 제 2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고 절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교파에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죽은 후에도 제 2의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컨대 물몬교에선 죽은 자를 위해 이 땅에 남은 가족이나 친지가 기도해주면 이 비유와 달리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후에 제 2의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정통 크리스천도 그러하듯이 그들도 물몬교를 믿지 않고 먼저 죽은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미처 전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그런 걱정을 단 번에 해소해주니까 교인들로선 안도할 수 있고 자기 종교의 가르침이 의롭다고 여기며 더욱 충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도 유사한 교리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를 일곱 가지 대죄와 그 외의 소죄로 나누는데 대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앓은 자는 곧바로 심판받습니다. 소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한명도 없으니 나머지 모두는 죽으면 연옥으로 들어가 구원을 기다리며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심판 받는 죄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인 원죄가 아니라 인간사회의 윤리차원으로 구별했습니다. 거기다 죽은 후에도 본인이 쌓은 공적에 의해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각기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 시비 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은 후에도 제 2의 구원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죽은 후에도 제 2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성경진리는 외면한 채 인간의 보편적 생각에 맞춰주는 구원관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죽음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보충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분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을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따라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만이 인간이 평생을 마셔야 할 생수의 근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간혹 개신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근본 이유를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많아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만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절대적 전제입니다.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심지어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우리 속에서 더럽고 추한 죄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나 육신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실토를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자체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길 말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죽은 후에 낙원으로 가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갑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음부에 있기에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 너무나 완악한 인간의 심령

목이 타들어 가는데도 물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진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신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교파에선 살아있는 가족들이 믿지 않고 죽은 형제들을 걱정한다고 가르치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죽은 자가 살아있는 가족을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물질계에선 영계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으나 욕기 서론에서 말하듯이 영계에선 물질계의 사정을 익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이 극심한 고통을 형제들에게 가르쳐주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28 절) 나사로보다 본인이 가서 설명해야 형제들이 잘 들을 것인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부자 바리새인이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 버릇을 못 버리고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며 부려 먹으려는 뜻은 아닙니다.

음부에 완전히 떨어진 자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낙원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허락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으로 불러 내려 교제를 나눴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심판을 받은 원인을 나사로가 대신 잘 전해주어서 자기 같은 실패를 겪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사 교제를 하라고 당부해 달라는 뜻입니다.

부자도 형제들의 인생관과 신앙관과 평소 삶의 모습이 자기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동료들과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음부에 떨어질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안 것입니다. 자기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 그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지내다가 심판 받을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 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거절했습니다.(29 절) 굳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구약시대 이래로 지금껏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 형제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절대적 기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하느냐 종교적으로 율법규정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 주인으로 삼아서 일생이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첫째 아니 거의 유일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더 중하게 섬기는 혼합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은 잘 알다시피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에 “하나님 외에”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함께 섬기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씩 지켜선 안 되며 첫째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전부를 아무리 다 잘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외면했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척하면서 둘째 계명도 어김으로써 사실상 둘 다를 어기는 것입니다. 아직 당신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자는 회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알면서도 다른 주인을 함께 섬기면 진짜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말씀보다는 체험이 우선인가?

그래도 부자는 미련이 남아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30 절)라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단지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자기 체험을 간증하면 쉽게 믿고 회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반영한 진심어린 고백입니다. 자기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경고한 내용을 다 배웠지만 제대로 깨닫거나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낙원과 음부가 있고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끼워있어서 음부에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이방인은 물론 원수도 사랑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0 절)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부활한 사람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인 첫째 이유는 그도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자 유대인 후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니다. 세리와 죄인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운명이 역전되었으니까 정작 그렇게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어두운 데서 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뜻은 죽은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해준 나사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요 11:45)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요 11:46-48)

주목할 사항은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에 대해선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고 그래서 메시아일 가능성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거나 줄어드는 것만 크게 염려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13 절)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전입니다. 당신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비유로 미리 경고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비유를 떠올리고 제발 당신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만 등장인물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이신 이유가 얼마나 심오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로(요 11:53), 심지어 나사로마저 죽이려고(44 절) 본격적으로 음모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하고 음흉한 대제사장이야바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니까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다는 교묘한 핑계를 고안해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정책은 민족 고유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게 허락해주는 것이었고 나중에 빌라도도 그 정책에 따라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들 돈을 지키려고 거짓을 진실인양 만들어내어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당국의 비호 아래에 온갖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 그분을 죽여서 자기들 돈을 살려내려 한 것입니다. 엄연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과 진리를 알고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시대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면 도저히 범할 수 없는 아니 상상도 못하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줄을 다 아셨기에 나사로를 음부의 증인으로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은 신자가 아니라도 거의 인정합니다. 간혹 임사체험 했다가 소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사로도 그랬을 것이라고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의 다 믿지 않고 일부 교인들마저 반신반의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이 지났고 전문 장의사가 와서 사망으로 판단하고 이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사체험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서 성경의 진리를 제 멋대로 곡해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읽고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합니다. 정말로 세밀하게 읽으면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사례를 목격했기에 성경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개구리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비유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땅으로 돌아가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고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다른 이의 육신의 상태를 온전히 알 수 없는데도 죽음에서 살려내었다면 자기 육신의 상태를 잘 아는 본인이 자신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인하려야 할 수 없도록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하나 없이 증언하는 데도 아예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후 12:4)고 증언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말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사람이 가히 이해하지도 못할 엄청난 계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간증해야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거꾸로 믿음에 장애가 될까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이 그런 천국체험 간증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영적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성경 진리가 온전히 믿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부활생명도 이미 받았고 그 완성만 남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형통의 올바른 의미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기에 주님의 부활은 물론 본인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부활은 물론 나사로를 살리기 훨씬 전에 비유로 그가 소생할 것을 예표했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만큼 성경이 절대적 진리임을 증명하는 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비유는 교인들 중에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둘로만 나뉘고 그 결과도 그 믿음대로 낙원과 음부 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자 아니 목회자도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련의 비유의 주제대로 돈과 하나님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왕이면 하나님도 잘 믿고 현실에서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업도 아주 크게 번창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돈을 많이 벌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라고 신자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해주시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흐름과는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썩 먹고 알 먹는 식의 신앙은 기독교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금 한국교회에는 그런 신앙이 큰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적인 성향에 성경의 진리를 갖다 맞춰주는 꼴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가지는 첫째 목적도 잘 믿어서 현실에서도 형통하자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한 행위와 종교적 경건한 의식은 그 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정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근 사천년 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증언합니다.(창 39:23)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도 형통했다고 합니다.(창 39:3) 둘 다 현실적 안락과 풍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것만 믿음으로 형통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그 뜻에서 어긋난 적이 없기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통 안에 있었기에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 가문을 기근에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축복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이웃의 생명이 살아나거나, 최소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차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형통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서 믿음으로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신명기 28 장도 율법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들어가도 나가도”라는 표현 안에 일상의 삶이 항상 그래야만 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권능과 은혜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악과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증언하는 내용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돈이 하나님 대신에 혹은 더 우월하게 자기 장래의 안전 기쁨 만족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생각만큼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바도 교회에 칭찬받는 신자라도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면 음부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참신자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실현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긴 해도 그 위세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조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눅 17:1,2)

## 실족케 하는 것은?

성경의 장절 구분이 때로는 그 의미의 흐름과 조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15 장과 16 장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번갈아가며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11 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간의 17:1-10 의 본문은 주님이 지난 두 장을 말씀하신 곳에서 바로 이어서, 아니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본문을 16 장 마지막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비유와 해설을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는 문제와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1 절 a) 실족은 본인이 부주의나 실수로 발을 헛디딘다는 의미대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타동사로 표현한 까닭은 원어로는 뒹, 미끼, 울무를 말하는 보통명사 스칸탈론인데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 뒹을 놓는지 주체를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없을 수 없다고 이중 부정으로 표현했으므로 강한 긍정으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로 찌든 인간들 사이에 부대끼면서 이런저런 현실적 난관이 닥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 없으나”라는 말은 불가피한 외부의 훼방으로 넘어졌으니까 언제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선 주님은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1 절 b) ‘화로다’는 큰 슬픔이나 싫어함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다른 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덧이나 올무를 놓는 사람은 크게 슬퍼해야할 정도의 엄청나게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겪을 불행보다 연자 맷돌로 목이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2 절) 연자 맷돌은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방앗간에서 당나귀가 끄는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에 목이 메어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곧바로 익사합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중죄인에게 시행하던 사형제도의 하나였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물보다 더 괴로운 지옥의 불 심판을 의미하므로 주님은 실족케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라고 크게 탄식한 것입니다.

## 예수님께 덧을 놓은 바리새인들

덧이란 교묘하게 위장해서 농기에 반사 신경이나 감각기관이 뛰어난 맹수마저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상당한 믿음으로 세심하게 조심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덧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껏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당한 일들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오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눅 6:7)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침 받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경쟁자로 갑자기 인기가 치솟은 예수라는 시골 랍비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만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회당 한 가운데 일어서게 해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11 절) 오른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정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를 회복시켜주었는데도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선 안 된다고 자기들이 따로 만든 규정을 위반한 것을 꼬투리 삼아서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옹아매어 핍박하려는 시도가 바로 덧입니다. 장차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덧을 겪을 것이므로 미리 경고해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처럼 그런 덧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그것도 지옥 심판을 받을 자는 오히려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대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9 절)고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 규정 대신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과 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길 가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그대로 버리고 간다면 그를 죽인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서 많은 신자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십팔 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꼬추 여인을 안수하여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이 화를 내며 회중들에게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눅 13:14)고 말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불구이긴 했지만 십팔 년이나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루 정도만 참았다가 안식일 다음날에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과 분란이 일어날 리도 없고 주님은 당신의 권능도 보이고 또 율법도 존중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대로 양쪽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회당장과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물론 믿음이 없어도 상식 차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고쳐주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리 없습니다. 주님이 굳이 다른 날로 미루지 않았다면 반드시 안식일에 고쳐야만 했던 주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치유만이 목적이라면 그 회당장의 말대로 주중에 행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틀리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오류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제정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합니다. 그럼 그것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해야 할 그분 고유의 일입니다. 물론 삶에 적용 실천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지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여서 그 뜻에 위배되는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세부 규정은 꼭 지켜야 할 의미도 필요도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라고 전제한 후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할 일이 주중에 하는 생업이라는 뜻입니다. 의사도 생업을 쉬어야 하므로 안식일에는 병원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일곱 째 날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당신께서 그 생명을 유지 보존케 하는 일은 창조와 동시에 영원토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신자도 노동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처음 계명을 제정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기뻐하신 첫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처음 맞은 날도 바로 하나님이 최고 큰 기쁨 가운데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더러 당신의 그 기쁨에 동참시켜서 함께 교제하려는 목적으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어서 따로 구별해낸 것입니다.(창 2:3, 출 20:11)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하루를 떼어낼 테니까 너희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당신을 위해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겐 생명을 주시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해주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넷째 계명도 가장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즉, 하나님의 그 뜻을 기념하라고 명한 것입니다.(출 20:8)

지금 손 마른 자나 허리가 불구인 여인이 완전한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폐해로 그런 질병과 불구로 고통을 겪다가 당신께서 원래 창조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니 하늘에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안식일에 그들을 고쳐준 뜻은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안식일규정을 원래대로 바로잡음으로써 당신이 인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랍비라면 당연히 유대공회가 정한 규정대로 주중에 고쳐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환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고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므로 더더욱 안식일에 고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도 인간은 절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벌 받는다는 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종교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또 그에 따라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여부를 가리는 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상을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쳐선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덧으로 삼아서 편 가르침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당에 먼저 오셔서 좌정해계시고 신자가 어떤 모습이든 교회에 출석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당신께서 선도적 주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상처 슬픔 고난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한 후에 그분의 큰 기쁨에 동참해야지 고난에 시달린 모습 그대로 잔뜩 찌푸리고 있어선 안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무게 잡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환자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신자는 주중 6 일도 그래야 하지만 주일만은 하나님과만 정말로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주중에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으니 그분께 의심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그분과 교제에 방해되는 요소를 해소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최소한 예배를 끝낼 때는 만면에 미소를 띠어야 합니다.

##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자와 하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작은 자들을 실족케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일시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은 물론 처한 환경이나 그만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권세를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도덕적 종교적 계명으로 사람을 종속시키고 그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이면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가장 좋은 먹이 감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고, 그런데도 돈과 권세를 누리고, 때로는 세울을 제멋대로 정하는 불법도 행하므로 모두 싫어합니다.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아무도 반대하기는커녕 더 좋아하고 그 본인도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전혀 반발을 못합니다. 나면서 불구자들이나 수십 년 먹은 불치병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손쉬운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간 유대인들도 그런 자들은 자기들 이웃에 절대로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공동체를 순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로운 목적을 앞세우니까 모두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녀, 세리, 이방인, 불구자, 불치병자, 고아, 과부, 귀신들린 자들처럼 인간사회에선 어떤 연유가 되었던 떳떳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전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한 닢이라도 즉,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떤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낸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아버지로 온전히 대접해주지 않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 특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멸시 했던 자들은 한 번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로 그들을 당신께서 먼저 찾아가서 눈물을 씻기고 고통을 치유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절대로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너희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도덕 종교 선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열성과 믿음으로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원수의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가장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 미혹되어 그 종이 되어있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된 까닭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마 19:14)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주로 교제 치유하며 가르쳤던 모든 자들은 세상에선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유대사회에선 차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로 실족케 한다는 것의 진짜 성경적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른 이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의로운 도덕이나 종교 규정으로 덮을 놓아서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실족하는 것을 당신과 연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마 18:6)이라고 즉, 예수님을 믿으려는 작은 자를 못 믿게 하면 지옥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또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랍비인 줄로만 알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여기면 실족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눅 9:48)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영접하면 하나님도 그를 더 많이 영접해주시므로 그분의 나라에선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교회 안에 실족케 하는 자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 교회 밖에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드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천 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위선적 형식적 율법적 문자적 신앙이 알게 모르게 성행합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기독교나 심지어 교회 자체의 이런저런 규정 관습 전통 등이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구원과 상관없으며 믿음이 좋고 나쁨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자들을 아주 경원시 합니다. 예수님은 공사역 중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술을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상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성 믿음을 판단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심지어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병이 걸리면 새벽예배나 주중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뒤에서 비아냥거립니다.

무엇보다 거지, 문둥병자, 갱패, 창녀, 동성애자, 전과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예배에 출석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까요? 대체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차별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실족케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잘 믿고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며 열심히 성경공부를 해도 주님은 '화로다'라고 탄식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천하 죄인 중의 괴수인데 어떻게 다른 이를 외모만으로 판단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덕적 종교적 기준만으로 그것도 한두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만 그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행할 일은 모든 이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짓눌린 인생을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기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들로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처음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선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전적으로 역사해주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사한 종교단체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엄숙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 목회자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오직 당신의 십자가 복음이 인간 세상의 작은 자들의 영혼에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이유는 담임목사, 중직들, 돈과 권세 많은 자들이 절대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주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위선적 형식적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순수하다고 해도 예수 믿은 후에도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엇보다 감정이 때로 앞서기에 서로에게 상처주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사부터 갓 출석한 신자까지 모두가 어린 아이 같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사역을 하던지 모두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한 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어 천국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자기부터 실족하여서 다른 이로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 신자가 절대로 행해선 안 되는 한 가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눅 7:3,4)

## 대조되는 두 가지 경우

예수님은 다른 이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맷돌에 매달려 익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2 절) 비유이긴 해도 아주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과 아주 판이합니다. 인간 선각자가 각성한 도덕적 종교적 계명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인간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여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온 과정을 당신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같이 부족한 인간끼리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단순히 형제가 수많은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주라는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누구나 아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강조해야만 하고 또 성경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 잘못을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교에선 세 번만 용서해주어도 최고 의인으로 대접 받으며 세 번을 넘어서면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하루 안에 일곱 번이나 잘못을 범한다고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간과 쓸개를 다 빼놓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도 용서해주라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으니까(3 절) 앞에서 말씀하신 실족하는 문제와 연관된 권면입니다. 주님은 1-2 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선 만일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두 번 사용하였으므로 두 가지 다른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려면 구태여 만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경우에 맞추어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의 만일은 행동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됩니다. 신자를 포함해 누구나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겪다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형제에겐 본인이 미처 몰랐던 외부의 시험과 훼방은 물론 본인의 잘못에 대해 경고해주어야 하고 그 경고를 수용하여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만일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네게 죄를 지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무관하게 실족한 다른 형제들을, 두 번째는 자기를 실족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경우는 쉽게 이해되고 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나 문제는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 일곱 번의 회개란?

하루에 일곱 번이나 회개한다고 해서 성격이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선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살피면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나 핍박을 주어서 실족하게 해놓고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도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경우에 비춰보면 그 일이 얼마나 의로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일곱은 완전 숫자로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기에 자신이 잘못해 남을 실족하게 만들었어도 끝까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자의 입장에서든 그러니까 그를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세상에선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에 빠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며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창 3:17-19)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가 편안하게 소산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인간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폐해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통도 늘어날 뿐입니다. 죄의 샅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형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동안 주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아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상처받았다고 여기고 상대를 미워했던 일들에도 내 잘못이 아주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남들보다 의롭게 행동한다고 자부한 것들이 정작 나만의 교만이었고 그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들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추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생각인지라 성령님의 깨우침이었습니다.

물론 현실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충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작 깨닫고 모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았다면 최소한 내 쪽에서 먼저 양보 희생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최초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고도 여전히 치사하게도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동안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강조의 수사법을 사용했지만 하루에 일곱 번을 상처주고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으로선 어쩌면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줄 깨닫자 찾아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의 심성이 여리고 순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전에 일곱 번이나 죄라고 깨달은 것만 해도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악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 대적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정신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임의로 만든 추가규정에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비천한 자들을 외모로만 차별하여서 유대 공동체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 민족만의 영광을 회복해줄 국수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실족하게 만든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 바리새인은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는 형제들도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경고해도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곱 번이나 회개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을 군말 없이 용서해주는 것이나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른 것인데 과연 이런 자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그렇지 하루에 일곱 번이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선 그 사람이 너무 가벼워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부터 생길 것입니다. 자기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진의를 의심할 것이며 오늘 용서해준들 내일 또 그러면 점차 시쳇말로 영혼 없이 대하다가 아예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놓고 그러진 않았어도 사실상 정죄 심판한 것과 같아집니다.

주님이 지금 인간의 그런 영적 수준을 모르고 이런 권면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절대 따르지 말고 그와 반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너희들끼리 임의로 만든 도덕적 종교적 규정에 따라 하나님 밖으로 쫓아내는 심판은 물론 절대로 차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인간에 대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관 사항이므로 인간끼리는 오직 사랑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일곱 번이나 자기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해주라는 말씀은 죄에 찌든 인간끼리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형제의 잘못은 끝까지 용서해주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부터 크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차선책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 형제의 범위

그럼 그 용서하고 사랑해주어야 할 사람 중에는 어떤 이도 포함되니까? 주님이 비유로 물에 익사하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앞서 말한 음부의 불심판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럼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 용서할 이유가 없으니 지옥에 떨어질 바리새인들이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괴롭히고 실족시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 공회원 같은 동족은 물론 극렬한 박해를 가할 이방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핍박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마저 그들로부터 차단시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주님을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인간의 이런 부패한 심령을 꿰뚫어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3-48)

유대인들이 임의로 저주 심판했던 세리와 이방인들조차도 같은 형제끼리는 사랑을 잘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랑은 믿음과 상관없이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 즉, 짐승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달라지려면 그와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본문 4 절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원수도 형제의 범위 안에 넣어서 사랑해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신자에겐 형제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자기가 정하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초대 교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심지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래 동안 구약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거짓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설명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값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이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원수에 대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 형제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고 기도하고는 운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과 정성에서 당시 최고였던 바리새인 랍비 바울이 스테반의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메섹도상에서 일대일로 대면한 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은 신자들을 극렬히 핍박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호와를 위하는 열성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기독교를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바울이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사십 명이 결사 단체를 만들어서 암살할 기회만 노렸습니다.(행 23:21) 세리와 죄인과는 밥도 한 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한 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끼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복수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송까지 받습니다. 인간사회에서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신과 원수 된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완악한 동족을 위해서 자신은 오히려 연자 밧돌에 묶여 바다에 빠져도 좋으니 저들이 제발 구원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 일곱 번을 용서하려면?

그런데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도 예수 믿고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남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하루에도 일곱 번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제 경우처럼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장 큰 죄 당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거나 복을 덜 받을 것 같은 것만 겨우 꺼내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했지만 과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일곱 번도 넘게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경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어렵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확히 보십시오. 당장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형제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잘못이든 누구든 끝까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고 있다면 우리 속에 평생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온전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힘과 용기가 불끈불끈 샘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자에게 행하시는 첫째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 중의 괴수이며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해줍니다. 나야말로 하루에도 일곱 번씩 남을 실족하게 만들기에 주님의 긍휼 없이 스스로 행했다간 한시도 부끄러워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부터 너무나 불쌍한 존재임을 안다면 다른 이들도 나와 똑같이 불쌍한 존재라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거지인데 거지끼리 서로 자기가 잘 낫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비방 정죄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파산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완악했던 옛사람이 여전히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 어쨌든 남들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런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들이 행한 일로 비례해서 기근 홍수 염병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떠나서 그들도 당신의 형상을 닮게 지으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네가 원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를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외모를 보면 특별히 나에게 실족하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한 인격체 전체를, 그것도 이 땅에 살아갈 일생 전체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불쌍합니다. 영적으로는 한 걸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비참해서 잘나고 못나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 들 수 있는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 털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자들을 판단 정죄 심판하는 자가 오히려 더 불쌍하고 추한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니까 매일 수도 없이 스스로 발을 헛디디거나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눈물과 한숨을 짓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설령 나를 실족하게 해도 그 사람만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거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사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에 목자 없는 양들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양들이 점점 서로에게 이리 떼가 되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실로 오묘하고 광대해서 지금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인 궁핍보다는 하늘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병원균 하나에 피조물 중의 최고로 고급한 존재인 인간이 그것도 첨단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망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일들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면서 흑암의 그림자만 점점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사치스러워졌어도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도구와 방식만 더 편리해진 것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칠수록 육체의 비만만 늘어나는 반면에 정신은 나태해지고 영혼은 더더욱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교리로만 접근해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의 마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면 영원한 것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질계에 제한되어 한시적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영원한 실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영원에 가장 가까워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성과 섬김만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실제로 자기는 죽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최소한 용서해주는 모습만이 다른 이의 영혼을 움직여서 전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더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형제가 되는 데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이 아니라 칠십 번을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4 절은 바로 십자가 구원 진리를 간단히 축약한 것입니다. 쉽게 풀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주었는데 인간인 너희는 사랑은 몰라도 용서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믿는 너희조차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용서해주는데 왜 너희는 남의 잘못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고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성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범위를 너희 스스로 정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한 명이라도, 또는 그의 특별한 행동 하나가 계속 싫고 미운 상태로 남아 있는지를 말입니다.

## 마땅한 신자와 못마땅한 신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5-10)

## 사도들에게도 불가능한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라도 회개하면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선 세 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된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익숙한데다 실제 체험에 의해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일곱 번까지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주님의 계속된 가르침에 비추어보면 용서해주어야 할 대상이 자기들을 핍박할 바리새인들이므로 더더욱 힘들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음으로써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비유를 이미 배웠습니다. 형제를 자기 멋대로 차별 정죄하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동반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명이니까 지키긴 해야겠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즉, 현재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용서할 자신이 없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누가는 제자 대신에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의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열둘을 구별하여서 사도라고 칭해주었습니다.(눅 6:12,13) 주님이 열두 명만 따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열둘이라는 숫자에는 또 이 땅의 시공간을 다 아우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세상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고동락하며 당신의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을 곁에서 보고 배운 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인데 누가는 지금 그런 사도들도 한 형제를 하루에 일곱 번이나 용서하는 일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주님의 본문 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에 출석한지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목사가 직분을 맡기려고 의논하면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조금 자라면 맡겠다고 극구 사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불안해지거나 세상 시험과 유혹에 수시로 넘어지니까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 년 전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절실한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님은 믿음을 더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대신에 두 가지 약간 생뚱맞은 비유로만 대답했습니다.

##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은 첫 번째 비유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6 절)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 진술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자체가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정법 표현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겨자씨 우리말로 치면 눈곱 혹은 먼지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미약하거나 주님이 바라는 차원의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어쨌든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치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믿음은 양이 아니라 순전성과 진정성으로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해도 뽕나무에 명령해도 나무가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비유하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과장법이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과 바다를 얼마든지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진 믿음의 권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승이긴 하지만 실제로 중세의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말로 명령하면 애완동물은 물론 꽃과 야채도 따랐다고 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더 중요한 주님 특유의 풍자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무도 신자의 순전한 믿음의 말에 복종한다면,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된 원수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인간인지라 하루에 일곱 번이나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적국의 장수 '맹획'을 일곱 번이나 포로로 잡았으나 일곱 번을 풀어주자 결국은 제갈량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칠종칠금(七縱七擒)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추어 가르쳤습니다. 겨자씨가 일 밀리미터도 안 될 만큼 작지만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눅 13:19) 신자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더러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씨앗만 봐도 장차 열릴 나무와 열매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해충이나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물과 비료만 공급되면 자연히 열매는 맺힙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큰 나무가 될 모든 요소들이 이미 다 담겨져 있듯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순전하다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신자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사실상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대답해준 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따르기 힘들다고 미리부터 주저 염려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러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도무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면 당신께서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니까 그 성취를 당신이 더 원하시고 신자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진정으로 한 번만 사랑하고 아니 용서해보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도도 해보지 않고 순종할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 차원이 전혀 다른 믿음

이어지는 둘째 비유는 주님이 첫째 비유에 말한 순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인이 종을 제 멋대로 냉혹하게 부려먹은 것 같은데도 종은 오히려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인이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당시의 관습이나 물건에 빗대기에 그 배경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당시의 종은 눈을 뜬 후부터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말 한마디로 종의 생명마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이 영어로 servant 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원어는 노예(slave)인 '둘로스'입니다. 그 어원적 의미도 waiter 즉,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대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명령하면 곧바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런 충성의 표시로 귀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었습니다.(신 15:17)

그러니까 종은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있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주인이 식사하는 옆에서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너도 밥 먹으라고 허락해야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주인 명령대로 따랐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사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 주인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종이 받는 보상입니다. 아무리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해도 따로 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주인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최고수준에 도달하면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스스로 갈고 닦으면 늘어날 수 있는 자신의 정신적인 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님더러 부족한 믿음을 당장 초자연적으로 채워 달라하기 보다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믿음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은 언제 어디에서나 주인의 말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평생을 가도 변화 수정 포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당신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말씀을 보고 몇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맛보았으니까 믿음이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해외선교사로 가라고 해도 순종할 자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하고 신령해진 것은 잠시 그 때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금방 유야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막상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두려워서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앞으로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핑계만 계속 대다가 실제로 순종 헌신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졌던 체험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선 나는 왜 모양 이 꼴이지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만약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맺어져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당장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일곱 번 용서하는 정도는 전혀 주저할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서로 인식하고 있는 믿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정확히 말해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과연 주님이 소망하는 순전한 믿음인지 심각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 무익한 종의 믿음

정작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자들더러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 절) 신자가 순종하는 행위나 또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종에게 주인이 숙식을 해결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 공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더러 네 목숨을 바치라고 명해도 동일한 고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치려는 순전한 믿음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자 하나님이고 종은 신자입니다. 제자들더러 스스로 조심해서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도덕과 종교의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정죄 심판하지 말라는 맥락에 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르면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멸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또 그래야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선 그들과 똑같이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세리와 죄인은 물론 유대사회에서 비천한 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상대도 앎았던 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았고, 12 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치유 받으려는 것을 야단쳤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고을들을 번개를 내려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배웠는데도 7:11 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하는 제자를 포함해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던지 떠올려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분께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따져보십시오.

잘못한 형제를 하루에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하고 또 종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로선 감당 못할 과분한 은혜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하겠다는 핑계는 설불리 나와선 안 되며 그러지 않는 것이 신자 된 증거입니다.

## 믿음은 방법이 아니다.

많은 신자들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꾸만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처한 상태가 어떠하든 심지어 믿음 순종 헌신과도 관계없이 당신만의 계획을 당신만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신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설령 신자가 죄에 빠져있어도 그래야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비와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신자가 느끼기엔 고난 같아도 하나님의 더 오묘한 사랑이 풍성히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소망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신자 내면에 키워나가는 열정적 힘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도덕적 종교적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특정한 일을 이루려고 특정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간섭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부자관계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전히 맺어졌기에 그 관계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부자관계가 맺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변경 취소 포기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만 부자 관계가 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전혀 안 들어도 여전히 그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철이

들고난 이후로는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상이 없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결실을 맺어도 아들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정상적인 상식을 갖춘 자식이라면 한 걸 같이 자기는 너무나 큰 불효자이고 자기를 보살펴 준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훌륭한 부모님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에게는 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주관하시어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강력하고도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이므로 그런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육신적 생명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신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자의 무조건적인 순종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당신만의 사랑으로 신자의 일생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라곤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롬 8:38,39)

믿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뀐 신분 위치 소속을 잘 알고 있기에 정말로 그런 바뀐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실제로 그분과 항상 교제 동행하고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기꺼이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에 수시로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신자의 평생 동안 내주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 마땅한 신자와 못마땅한 신자

다시 강조하지만 병이 낫고, 고난에서 구출 되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자라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목적으로 믿음을 키우려 들어선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그 소망하는 결과가 의롭고 경건해도 인간의 욕심으로 그친다면 훨씬 더 좋고 유익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엄격히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셈입니다. 설령 성도와 이웃의 부러움을 사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배제되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데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행사만 열성적으로 치루면 이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성의와 경건을 다 동원했는데도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 원망 불신합니다. 심지어 이러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인간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평만 해도 천륜을 어긴 패륜아라고 비난 받는데 하나님에겐 예사로 그립니다. 인간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이니까 일일이 벌주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참아주실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징계나 연단을 주실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혹사하는 것 같아도 종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시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나 주인이 잘못된 일을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마땅히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고 또 그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최고 큰 기쁨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어진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종으로서 행하는 일도 너무 좋아야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때는 처절한 절망과 죽음이었음을 실제로 체험 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져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기에 나 또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다시 더 노력해서 자라게 할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스승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선 완전히 백팔십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하는 것으로 그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개혁시킬 나사렛 예수 신혼종교 집단의 수제자라고 한껏 교만했으나 비로소 자기야말로 가장 무익한 종이라고 절감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죽기기까지 복음의 종으로 순종했으며 마지막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표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처럼 목숨이 오고가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도 쉬운 일로 세리와 죄인과 밥만 한 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면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무익한 종이니까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신자 아니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소외된 자를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어떤 세속적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신자에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은 주인으로 마땅한 일이며 자기가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마땅하신 분이니까 마땅한 일을 맡겼으므로 나도 마땅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힘드니까 하나님 그분이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신자입니다. 자신에게 마땅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그분도 마땅히 여겨지고 그래야만 나도 마땅히 순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분은 둘 중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더 쉽게 질문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이 기도할 때에 따르는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진짜 아들입니까? 그래서 아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5:1-2, 17:7-10)

## 처음과 끝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5:1 에서 17:10 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일곱 개의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각기 다른 내용이나 놀랍게도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돌아온 탕자 시리즈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글은 서두에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나 주제를 제시한 후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나가다 마지막에 다시 그 주제에 맞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일련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마치는 두 성경본문을 비교해보십시오. 저자 누가가 처음에 언급한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되풀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비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도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종은 곁에서 시종을 들어야만 했고 주인이 식사를 끝내고 허락해야만 자기도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유 자체의 주제는 제자들더러 하나님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순종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필이면 주인의 식사 시종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다 그 중간의 다른 비유들에도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여인이 없어진 동전을 찾고선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눅 15:6,9) 타국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큰 아들은 자기에겐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도 부자가 매일 호사스럽게 잔치를 했지만 죽어가는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이웃과 잔치를 벌이는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했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방한 일이 당신께서 보시기에 한두 번의 가르침으로는 쉽게 깨우치지 못할 너무나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일곱 비유의 단일 주제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들을 찾는 비유 셋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길을 잃고 온갖 고난과 죄악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되찾으시고 찾고 나면 크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리와 죄인과 즐겁게 식사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에게 불평한 첫째 아들처럼 왜 당신을 비난하느냐고 변증한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평안을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므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마음에 드는 자들끼리만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선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안락은 얻을지 몰라도 영원한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더러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비유 내용과 동일하게 종이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계시해준 것입니다.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을 옆에서 듣고 비웃자 주님은 그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부자는 매일 호사스런 잔치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는 거지는 대문 밖에 죽게 내버려둠으로써 음부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아직 살아 있으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형제들에게 영계에서 메신저가 가서 잔혹한 음부심판을 증언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더러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았다면 죽은 후에는 제 2의 기회가 없으니 제발 늦기 전에 회개하고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 배척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계에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면 가르칠 수 없는 비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겨자씨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 두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더러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아무리 큰 허물과 잘못을 범해도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까지 용서해주라고 했습니다. 용서해줄 대상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겨자씨만 하더라도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스스로 노력하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먼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종은 자기는 무익한 종이니까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아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일련의 가르침이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의 주인과 종의 비유를 당시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옆에서 시중 들어야 하는데도 뒤에서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여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때만 순종했고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처럼 행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절대로 그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비유에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주제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당신께서 되찾았고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된 종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형제를 세 번만 용서하면 충분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 나중 된 종 제자들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는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율리 종교의 규정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이가 당신인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 하지 로마를 물리칠 궁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은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에 항거하며 회개하라고 꾸짖는 바람에 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왜 유대사회의 불법과 죄악을 고쳐주지 않느냐고 따진 셈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눅 7:22)고 대답해주었습니다. 로마나 헤롯을 물리쳐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메시아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 앓은뱅이, 나병환자, 귀먹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현대첨단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아픈 자를 고치고 눈물을 닦아주며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35:6 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구약성경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리와 죄인 같은 비천한 자들과 식사교제를 하는 모습만 보고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눅 7:23)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면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존경받는 도덕가 종교가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 인간 랍비라면 두려워서 절대로 입에 올리지 못할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랜 기간 외쳐왔던 구호대로 말하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구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큰 반감을 갖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구원의 길을 선택해서 따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냉혹하게 심판하느냐고 반발합니다. 예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친 자비하신 분인데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심판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해 줄만합니다. 문제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옥은 없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믿으면 된다는 세상 의견에 동조합니다. 사후에 어떤 형벌도 없다면 사실상 구원 받은 셈이라 저라도 이 땅에서 실컷 호사스럽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들만 가장 불쌍하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 인간 추악함의 절정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알고도 짐짓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후의 행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이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세리와 죄인과의 교제를 금지시켰고 또 안식일 규정 등 여러 부수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막상 자기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크게 어긴 일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 마지막 날인 안식일 전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습니다. 유대의 행정 사법 입법은 물론 종교까지 관장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70 명의 공회원들과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공회를 소집할 수 없었는데도 한밤중에 오직 주님을 죽이려는 목적만으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피고인 예수님을 변호해줄 증인들은 전혀 세우지 않고 반나절 동안에 여섯 번의 재판을 졸속하게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심리를 진행한 후 형량에 대한 선고는 하루를 쉬고 난 후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자기 생각이 한쪽 논리에 기울어졌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최하 하루 정도는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판결을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가 저서 새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님을 나무에 매달아야만 했기에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재판 과정을 급하게 몰아갔습니다. 실제 사형선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무죄임을 확신하고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중을 선동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총독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서 기어이 십자가 처형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식사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 동안 유대교에선 누리지 못한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을 맛보자 대중의 인기도 급속히 주님께로 쏠렸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와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 것이 크게 염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다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과 기적을 차분히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주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이 오직 선만 행했지 처형당할 죄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속으로는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무조건 죽이려고만 들었습니다. 자기들 탐욕과 자존심을 채우려고 열토당토 않는 거짓 죄목을 만들어서 덮어씌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규정을 어겼다고 정죄 심판하면서 자기들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 규정을 어겼습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만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고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자기들 이권과 자존심을 무너뜨린 시골 랍비에게 귀 기울일 자는 없습니다.

그들로선 나사렛 이단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 받는 모습인 나무에 매달아 죽여 버리면 유대 대중들도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고 누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양육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마저 거꾸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빌라도, 헤롯, 유대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당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지혜고 경건하고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배워서 법률과 종교의 전문가들이었고 일반 백성들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존경했지만 그들의 진짜 속사람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특유의 종교적 편견 오류 집착을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고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고시를 패스하여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에 천재적이 수완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들 같은 사회 지도층이 가장 부패하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의로운 자들이 범하는 죄악인지라 가장 교묘하고 음흉하며 규모 면에서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구변에 능해서 잘못된 것에는 완전히 시침 떼고 도리어 괴상한 논리로 자신의 정당성만 강변합니다.

일반 대중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남들보다 훨씬 착하고 의롭다고 자부 내지 착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부패한 지도층들을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려 노력합니다. 지금 세대는 대놓고 그들이 옳고 선하다고 비호 찬양하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인간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실제로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나아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안의 일원이 되어 있는 엄연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두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도덕과 종교는 믿음과 다르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 랍비라면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음부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대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인간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 대적한 것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모르고 평생을 지냅니다. 나아가 스스로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자신하기에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십자가 속죄의 은혜는 전혀 필요 없다고 버팁니다.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 천하의 죄인이냐고 반박하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만의 구원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아니 죽기 직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도덕과 종교를 열심히 준행해서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최소한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자신의 진짜 영적인 실상을 완전히 까뒤집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일생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행동과 말은 물론 머릿속까지 찍은 영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볼 자신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현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간절한 초대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한 복음입니다.

일곱 비유에서 가장 우리의 처지와 실감나게 가까운 둘째 아들 탕자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그는 스스로 도덕적 종교적 회개를 한 적이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큰 기근이 닥치자 그 동안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도 전부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료라도 조금 얻어먹으려 했으나 그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비록 짐승처럼 살더라도 아버지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방의 나라로 제 멋대로 떠난 것도 청운의 꿈을 품고 크게 성공하려고 갔다고 해석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짐승처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세속의 재미에 폭 빠져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영적 각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정말로 죽겠다고 덜컥 겁이 났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돌아온 것뿐입니다. 돌아와서도 아버지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어 숙식만 해결해주면 자기로선 마땅한 일을 넘어서 과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인과 종의 비유의 주제와 그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 예수만 따르라.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이 식사교제 금지를 당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로 의로운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인지라 세상에선 도무지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씻어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결국 일곱 비유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하늘에서의 잔치나 이 땅에서의 잔치나 그 주관자는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더러도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한 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름 받은 종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주님의 정체성을 끝내 깨닫지 못해 십자가 처형 전에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인간의 자력 구원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오순절에 지혜의 영인 성령님이 강림하자 주님이 미리 예언한대로 당신께서 가르친 이런 비유들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사회에서 멸시 추방당할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향 품을 채우고 요셉의 가족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원수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음부로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한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무명의 유대인 랍비이므로 산헤드린이 의결한 규율과 관습을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데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들은 그 종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자기 인생은 물론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기준에 따라 이웃을 정하고 나머지 모두는 잃어버린 양으로 방치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따르면 예수 천당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거역하면 불신 지옥입니다. 비록 표현이 직설적이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절대적 진리이자 일곱 비유를 포함한 성경 66 권이 말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만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을 정말로 솔직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기에 인간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인간도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하려면 그분의 선하심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데 그 길은 순종뿐입니다.

불신 세상은 두 부류의 탕자로 나뉩니다. 둘째아들 같이 도덕과 종교 없이 세속의 재미에 빠진 탕자입니다. 또 자기 나름의 도덕과 종교를 가졌어도 첫째아들처럼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탕자입니다. 모두가 갈 바 모르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대로 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을 세 번 배반할 때까지는 도덕과 종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줌으로써 더 이상 당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맡길 양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된 신자는 이미 영생의 복을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일생동안 할 일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라도 끝까지 되찾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등한히 하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서히 아니 완전히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돌아온 탕자의 일곱 비유가 던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의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 한 명이라도 되찾아서 함께 희락의 잔치를 벌이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맺는 말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 앞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두 비유를 서론 격으로 가르쳤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동물과 물건으로 스스로는 주인을 절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전에 자기들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온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저 잃어버린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셋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외국에서 자기 몫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물이나 물건과는 다른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큰 기근으로 굶어죽을 처지에 빠지고 돼지용 사료조차 얻어먹지 못하자 비로소 부유한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단지 인간이 지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함을 얻는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바이라 예수님이 구태여 가르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일찍 부모를 떠나 외국으로 가서 돈을 허랑방탕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몰랐고 특별히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관계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데 아들에겐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와의 현실적 관계마저 끝내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유산을 받기 훨씬 전부터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먼 이국에 가서 부모와 교통이 되지 않아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가 생기지 않았으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굶어죽게 되자 다시 아버지에게 빌붙어서 목숨만 건지려고 돌아와선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얻는 신분이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취득하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신분이 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집안 종의 하나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도 되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아무리 지은 죄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쳐도 아들이 입 밖에 꺼내선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만한 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이전과 달리 온전한 부자관계로 맺어져 새 아들로 다시 출생했다는 징표였습니다. 반지는 아들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 받은 것이며, 옷은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것이며, 신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징으로써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뜻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상거지 행색이었던 둘째 아들이 최고로 품위 있게 바뀐 면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이 집안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에 대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 아버지는 혹시나 돌아올까 아들이 떠나간 쪽의 길을 쳐다보는 것이 일상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처음부터 돈만 대주는 기계였다면 아버지께겐 끝까지

어떤 죄를 범해도 모든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겐 아버지가 사실상 처음부터 없었고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잠시 동안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큰아들이라고 해서 둘째와 하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사실상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과의 가족 관계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항상 더 많이 준다고 시기했기 때문인데 장남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자기 풍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간주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둘째 아들보다 더 탕자였던 셈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탕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덕적 죄를 많이 지은 탕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은 두 부류의 탕자로만 나뉩니다. 도덕과 종교 없이 세속의 재미에 빠진 회개 전의 둘째 아들 같은 탕자와 도덕과 종교를 가졌기에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고 남을 차별하는 첫째 아들 같은 탕자입니다. 둘 다 길 잃은 양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망의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 외면한 잃어버린 아들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동전이나 양처럼 스스로는 그분께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전에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기에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닫게 된 자입니다. 이전의 잃어버렸던 자기는 정말로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 신자입니다.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 이후에도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등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잃어버린 인간들의 여러 모습을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 대신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일생을 돈을 목표로만 살고 있는 자들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가르치게 된 계기는 세리와 죄인(이방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지도자들이 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진리를 정확히 깨달아 자신의 삶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실제 그 가르침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나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주셨다고 가정하고 그 뜻을 묵상하며 새겨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돈이 나의 주인인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제 글들이 독자들에게 감히 그런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 번 소원해봅니다.